

해남 신덕리 청자요지

(전라남도 기념물 제220호)

발굴조사 약보고서



2017. 12

해 남 군

(재)민족문화유산연구원

I. 조사 개요

1. 조 사 명 : 해남 신덕리 청자요지
2. 조사지역 : 전라남도 해남군 화원면 신덕리 산 102 일원
3. 조사기간 : 2017년 09월 04일 ~ 2017년 12월 08일(조사 면적 620m²)
4. 의뢰기관 : 해 남 군
5. 조사기관 : (재)민족문화유산연구원
6. 허가번호 : 제2017-1067호

7. 조사단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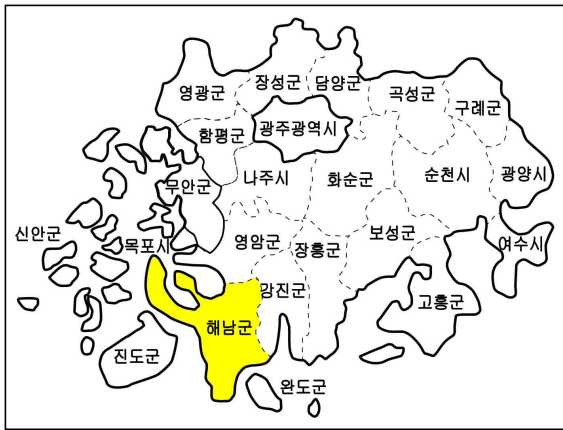
조 사 단 장 : 한 성 옥 (민족문화유산연구원장)
 책임조사원 :
 조 사 위 원 : 변 남 주 (국민대학교 교수)
 조 사 원 : 김 선 향 (민족문화유산연구원 연구원)
 준 조 사 원 : 이 지 훈 (민족문화유산연구원 연구원)
 보 조 원 : 최 요 한 (민족문화유산연구원 연구원)

8. 조사경위

해남 신덕리 청자요지는 국립광주박물관(2000), 목포대학교박물관(2001)의 정밀지표 조사로 그 중요성이 재차 인정되었다. 가마터의 중심은 신덕리 일대로 가마의 대부분은 고려 초기에 운영되었는데, 이처럼 초기 청자 가마가 집단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곳은 국내에서 신덕리 지역이 유일하다. 따라서 일찍부터 국내 자기 발생의 단서와 초기 청자의 기형 변화 등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유적으로 주목받아 왔다. 그러나 유적의 성격과 특징을 정확하게 규명하기에 지표조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주변상태가 양호하여 완벽하게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으나 자연재해 등으로 훼손의 위험이 있다. 이에 가마의 운영체제 등에 대한 정확한 성격을 밝히고 유적의 교육과 문화 자원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이번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II. 조사 지역과 주변 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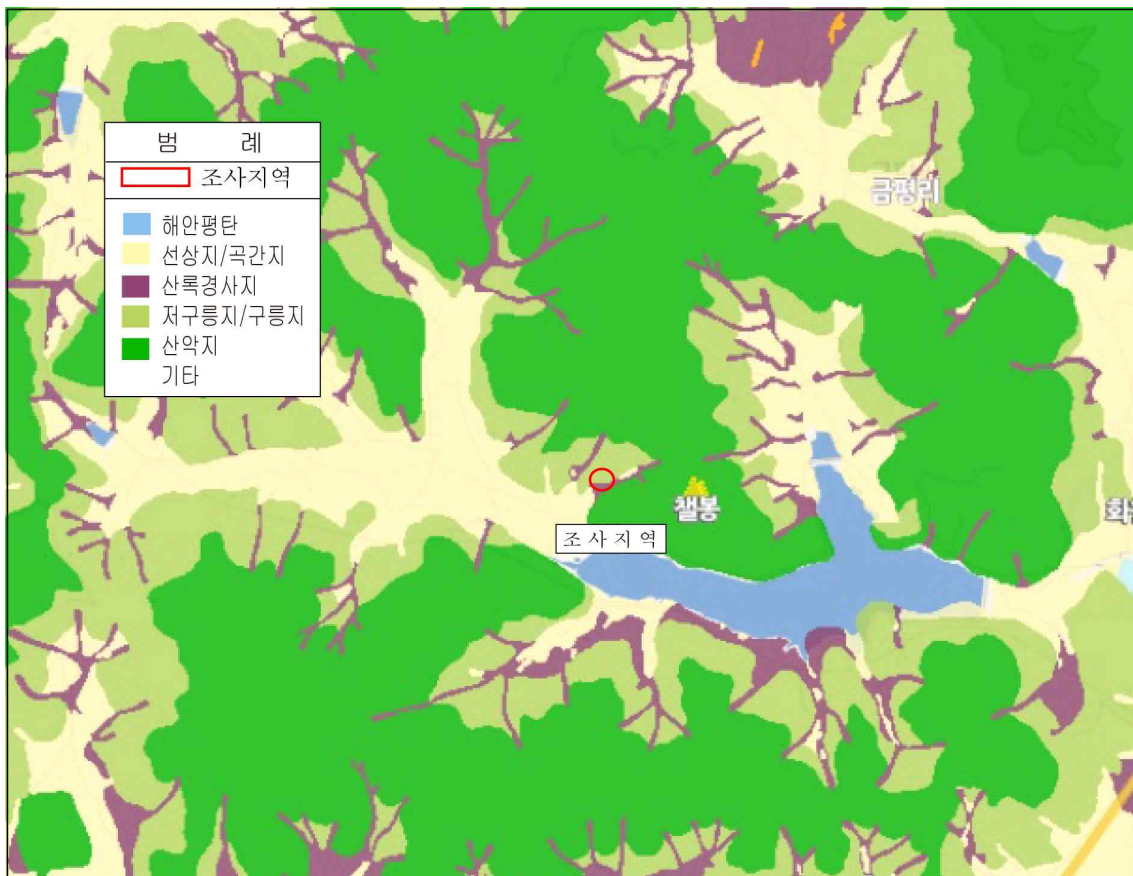
1. 자연 · 지리적 환경



도면 1. 해남군 위치도

해남군은 한반도의 최남단 서남해안의 가장자리에 위치하며, 화원·산이반도와 대둔산(672m)·두륜산(703m)이 남북으로 뻗어 있는 반도이다. 또한, 동쪽과 동북쪽이 내륙인 강진·영암과 연결된 육지이며, 나머지 3면은 모두 바다와 연해 있다. 군의 지리적 위치는 동경 126°15'~126°43', 북위 34°18'~34°45'이며, 서북으로는 목포시, 남으로는 진도군, 동북으로는 영암군, 동으로

는 강진군 등 5개 시·군과 접해있다. 행정구역은 1읍 13면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도서 수는 93개(유인도 8개, 무인도 85개)이며 면적은 992.87km²이다.



도면 2. 조사지역 토양 지질도(출처 : 농촌진흥청)

해남군의 지형은 소백산맥의 지맥이 해남반도 끝까지 이어지면서 완만한 구릉지대를 형성하고 있다. 동북부지역은 흑석산(650m) 등 산악지대를 이루고 있으며, 해남군의 중부 및 서남부는 평야지대로 간척지와 양식장 등이 이어진다. 해남군의 주요 산들은 대둔산과 달마산(489m), 대흥사를 안고 있는 두륜산 등이 있으며, 중심부에는 삼산면과 현산면 경계에 병풍산(313m) 및 마산면과 해남읍 사이에 금강산(481m) 등이 있고, 동북부의 계곡면과 영암군 학산면 사이에 흑석산 등이 있다. 또 문내면과 황산면 사이에 남석으로 유명한 옥매산(174m)이 있다.

해남군의 하천은 단류(短流)로 방춘천·계곡천·옥천천·삼산천·조막천·구산천·군곡천·산정천·봉황천·고현천·현산천·월호천 등이 있어 농사를 짓기에 적합한 지형을 이룬다.

해남군의 지질은 쑥돌이라 하여 건축과 토목용으로 사용되는 화강암과 변성화강암이 많고 화산재 등이 굳어져 가공이 용이해 토목재료 등에 사용되는 응회암과 분암 등이 복잡한 지질구조를 이루고 있다. 또 암석의 풍화작용과 바다의 퇴적작용으로 이루어진 평야로는 옥천평야 등이 있다.

해남군은 해양성기후로 온화하여서 농업과 어업을 하기에는 천혜의 땅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화원반도를 중심으로 리아스식 긴 해안선을 갖고 있어 바다를 이용한 각종 수산양식업으로 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영산강 III-1·2지구와 고천암 간척사업을 통해 많은 농경지가 확보되었다. 연평균기온(2010년 기준)은 13.4℃이며, 강수량은 1,325.4mm(2010년 기준)이다.

조사지역인 화원면은 남쪽으로 문내면(門內面)과 접하고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다. 일성산(日星山:335m)·운거산(雲居山)·지운산(智雲山:228m) 등 산지가 있고, 평야는 소하천 유역에 산재한다. 남쪽 문내면과의 경계에 간척지를 간척한 평야가 있으며, 해안에는 여도(汝島)·시하도(時下島) 등 9개의 도서가 있다.

2. 고고·역사적 환경

1) 고고학적 환경

해남지역에서는 여러 차례의 지표조사를 통해 구석기시대부터 삼국시대에 이르는 다양한 유적·유물이 확인되었다. 해남지역의 고고학적 조사가 처음으로 이루어진 것은 1975년 최몽룡¹⁾과 1977년에 문화재관리국²⁾(현 문화재청)에 의해 이루어진 바 있다. 본격적인 종합학술조사가 이루어진 것은 1986년 목포대학교박물관³⁾에 의해서이다. 이후에도 해남군에서는 부분적으로 지표조사가 몇 차례 이루어져 새로운 유적들이 추가되었다⁴⁾.

구석기시대 유적은 산이면 대진리 월산, 덕송리 덕곡·황조, 구성리 구성, 성산리 방죽골에서 확인되었다. 유물산포지에서는 석영제 자갈돌을 이용하여 만든 여러면석기, 찍개 등이 수습되었다⁵⁾.

신석기시대 유적으로는 백포리 패총⁶⁾이 있다. 패총은 현산면 두모마을 뒷산 사면에 위치하며, 패각층에서는 빗살무늬토기편이 확인되었다. 구석기시대와 신석기시대 유적에 대한 발굴조사가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아 당시의 문화적 성격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청동기시대 유적으로는 지석묘가 대표적이다. 북평면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106개 군 800여기 이상이 확인되었으며, 특히 마산·옥천·삼산·현산면에 집중적인 분포를 보이고 있다⁷⁾. 지석묘의 발굴은 현산 고현리⁸⁾·장소리⁹⁾·황산 호동리유적¹⁰⁾에 대해 이루어졌

1) 최몽룡, 1975, 『전남고고학지명표』, 전남매일신문사 출판부.

2) 문화재관리국, 1977, 『문화유적총람 -전라남도-』.

3) 최성락, 1986, 「해남지방의 선사유적·고분」, 『해남군의 문화유적』, 목포대학교박물관.

4) 성낙준·신상효, 1989, 「해남 원진리 옹관묘」, 『영암 와우리 옹관묘』, 국립광주박물관.

최성락·정영희, 1997, 「고고학적 지표조사 보고」, 『화원 관광단지조성지역내 문화유적 지표조사보고』, 목포대학교박물관.

김정철, 1998, 「해남 영호리 유적과 유물」, 『박물관연보』6, 목포대학교박물관.

최성락·정영희·박철원, 1998, 『현산-남간 국도확장 및 포장공사 사업구간내 문화유적지표조사보고』, 목포대학교박물관.

최성락·고용규, 1999, 「고고·관방유적」, 『문내-황산-해남간 국도 확·포장 공사구간내 문화유적 지표조사보고』, 목포대학교박물관.

은화수·최상중, 2001, 「해남 북일면일대 지표조사보고」, 『해남 방산리 장고봉고분 시굴조사보고서』, 국립광주박물관.

목포대학교박물관, 2002, 『문화유적분포지도 -전남 해남군-』.

이영철·이은정, 2002, 「전남 해남출토 신자료보고」, 『호남고고학보』15, 호남고고학회.

5) 목포대학교박물관, 2002, 『문화유적분포지도 -전남 해남군-』.

6) 최성락, 1986, 「해남지방의 선사유적·고분」, 『해남군의 문화유적』, 목포대학교박물관.

최성락, 1987, 「해남 백포만일대의 선사유적」, 『최영희선생환갑기념 한국사학논총』, 탐구당.

7) 목포대학교박물관, 2002, 『문화유적분포지도 -전남 해남군-』.

8) 이영문·이정호, 1998, 『해남 고현리 지석묘』, 목포대학교박물관.

9) 최성락·이정호·최미숙, 2000, 『해남 장소리·선진리유적』, 『문화유적 시·발굴조사보고』, 목포대학교박물관.

10) 최성락·고용규·안재철, 1992, 「해남 호동리 지석묘 발굴조사보고」, 『해남 진산리 녹청자요지』, 목포대학교박물관.

으며, 상석 5기와 하부구조 3기가 확인되었다. 유물은 무문토기편·석축·석도 등이 출토되었다.

철기시대 유적으로는 군곡리 패총과 옥녀봉 패총이 있다. 군곡리 패총¹¹⁾에서는 주거지와 토기요지가 발굴조사되어 화천을 비롯하여, 경질무문토기와 경질찰문토기 등의 토기류·토제품류·골각기류·철기류·석기류 등이 출토되었으며, 옥녀봉 토성 인근에 위치한 옥녀봉 패총¹²⁾에서는 대형옹관편과 적갈색경질토기편 등이 수습되었다.

삼국시대 유적으로는 생활유적과 분묘유적을 들 수 있다. 삼산면 신금유적¹³⁾에서는 3~5세기대로 추정되는 주거지 75기·수혈 15기·주구 4기 등이 발굴조사 되었다. 현산면 분토유적¹⁴⁾에서는 2회에 걸친 발굴조사결과 주거지 57기·토광묘 3기·옹관묘 2기·석실묘 2기·석곽묘 6기 등이 확인되었다. 안호리·석호리 유적¹⁵⁾에서는 3세기 후반부터~4세기 초반 사이에 만들어진 고분 50기 등이 확인되었다.

분묘유적은 옹관묘와 석실묘가 있다. 옹관묘는 삼산면 봉학리 신금마을에서 합구식 옹관 1기, 원진리 농암마을에서 옹관 3기가 수습¹⁶⁾ 되었으며, 화산면 부길리유적 3옹식 옹관묘가 확인¹⁷⁾ 되었다. 석실묘는 현산면 월송리 조산고분¹⁸⁾, 북일면 방산리 장고봉고분¹⁹⁾, 용일리 용운고분²⁰⁾ 등이 대표적이다. 그 외에 옥천면에 위치하는 만의총 1호분²¹⁾·만의총 3호분²²⁾·북일면 신월리 방대형고분²³⁾ 등이 조사되었다.

만의총 1호분의 매장주체시설은 석곽으로 내부 목관과 외부 석곽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물은 신라시대로 추정되는 토우와 서수형토기가 결합된 이른바 ‘토우장식서수형토기’가 출토되었다. 그 외 토착세력의 토기와 함께 백제 무령왕릉 출토품과 같은 양식의 금장식 청동곡옥, 신라양식이 가미된 가야토기, 왜계 조개팔찌 등 다국적의 다양한 유물이 출토되었다²⁴⁾. 3호분은 횡구식 석실분 1기와 수혈 1기에서 다양한 유물들이 출토되었다²⁵⁾.

- 11) 최성락, 1987, 『해남 군곡리패총 I』, 목포대학박물관.
최성락, 1988, 『해남 군곡리패총 II』, 목포대학박물관.
최성락, 1989, 『해남 군곡리패총 III』, 목포대학박물관.
목포대학교박물관, 2017, 『해남 군곡리 패총 발굴조사(4차) 약보고서』.
- 12) 목포대학교박물관, 2002, 『문화유적분포지도 -전남 해남군-』.
- 13) 이영철·김미연·장명엽, 2005, 『해남 신금유적』, (재)호남문화재연구원.
- 14) 최성락·김진영·백명선, 2008, 『해남 황산리 분토유적 I』, (재)전남문화재연구원.
김진영·장성일·박영훈, 2009, 『해남 황산리 분토유적 II』, (재)전남문화재연구원.
- 15) 대한문화재연구원, 2017, 『해남 화산-평호 도로건설공사 구간 내 발굴조사 약보고서』.
- 16) 성낙준·신상호, 1989, 「해남 원진리 옹관묘」, 『영암 와우리 옹관묘』, 국립광주박물관.
- 17) 성낙준, 1994, 「해남 부길리 옹관유구」, 『호남고고학보』1, 호남고고학회.
- 18) 서성훈·성낙준, 1984, 『해남 월송리 조산고분』, 국립광주박물관.
- 19) 은화수·최상중, 2001, 『해남 방산리 장고봉고분 시굴조사보고서』, 국립광주박물관.
- 20) 송의정 외3, 2004, 『해남 용일리 용운고분』, 국립광주박물관.
- 21) 동신대학교문화박물관, 2014, 『해남 만의총 1호분』.
- 22) 신대곤 외4, 2009, 『해남 만의총 3호분』, 국립광주박물관.
- 23) 최성락 외3, 2010, 『해남 신월리 고분』, 목포대학교박물관.
- 24) 동신대학교문화박물관, 2014, 『해남 만의총 1호분』.

해남 용두리고분이 발굴조사 되었는데 분형은 전방후원형이며, 매장시설은 횡혈식석실이다. 석실 내부에서는 개배·발형기대·호·직구호·고배·장군·흑갈색전문도기편·철촉·도자·성지구·관상금구·관옥·은박유리옥·곡옥·은공옥·옥 등이, 분구에서는 개배·고배·호·유광광구·소호가, 주구에서는 개배·호·병이, 습석시설에서는 장경호·유공광구·소호·개배·직구호 등이 출토되었다²⁶⁾.

통일신라시대 유적으로는 도기가마가 조사된 오시골유적²⁷⁾이 있다. 유적에서는 2기의 가마가 조사되었는데, 모두 생토면과 기반암 위에 점토를 이용하여 조성하였으며, 소성실의 아래쪽으로 넓게 채퇴적층이 형성되었고, 연질과 경질의 호·완·뚜껑·기와류 등이 출토되었다. 출토된 유물이 영암 구림리, 공주 가교리 유적 출토유물과 유사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어 보고자는 가마운영 시기를 통일신라시대 말기로 추정하였다.

고려~조선시대 유적은 도요지, 성지(城址), 봉수 등이 대표적이다. 도요지는 1986년 국립광주박물관에 의해 체계적으로 지표조사가 시행²⁸⁾되었으며, 2002년 목포대학교박물관에 의해 산이면과 화원면 일대의 청자가마터와 함께 분청사기가마터 12개소, 백자가마터 16개소, 웅기가마터 24개소 등이 보고²⁹⁾되었다. 발굴조사는 산이면 진산리 청자가마터³⁰⁾와 화원면 구림리 웅기 가마터, 구림리 독가촌 웅기 가마터³¹⁾, 백야리 웅기 가마터³²⁾에 대해 이루어졌다. 특히 산이면과 화원면 지역에는 고려시대에 운영된 녹청자가마터가 집중적으로 밀집되어 있는데, 이곳에서 생산된 청자는 고려 전기의 짧은 시기에만 한정적으로 보이는 조질의 녹청자들로서 지방과 하급 관청 등의 수요를 위해 제작된 것으로 추정³³⁾되고 있다.

도요지에 대한 사료는 『世宗實錄地理志』에 하품에 자기소와 도기소가 각 1개소씩 있었다는 것이 유일하며, 이후 『經國大典』과 『東國輿地勝覽』 등의 지리지에는 도자에 대한 기록이 언급되지 않고 있어 해남지역의 요업활동이 중앙통제를 받지 않고 민수용으로 공급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성지(城址)는 금강산성지, 금성산성지, 우항리성지, 현산고성지, 옥산고성지, 이진성지, 전라우수영성지, 달량진성지, 어란진성지, 원문토성지, 죽산성지, 흑산고성지, 해남읍성지 등이 있으며, 봉수는 관동리 관두산봉수, 금강산봉수, 달마산봉수, 송호리 갈두산 봉수, 좌곡산 봉수, 황원 봉수 등이 있다³⁴⁾.

25) 신대근 외4, 2009, 『해남 만의총 3호분』, 국립광주박물관.

26) 조현중 외3, 2011, 『해남 용두리고분』, 국립광주박물관.

27) 호남문화재연구원, 2004, 『해남 백야리 요지』.

28) 국립광주박물관, 1986, 『전남지방 도요지 조사보고』.

29) 최성락·한성옥·송태갑, 2002, 『해남의 청자요지』, 목포대학교박물관.

30) 최성락·최건, 1992, 『해남 진산리 녹청자요지』, 목포대학교박물관.

31) (재)영해문화유산연구원, 2013, 『해남 구림리 웅기요지』.

32) 호남문화재연구원, 2004, 『해남 백야리 요지』.

33) 최성락·한성옥·송태갑, 2002, 『해남의 청자요지』, 목포대학교박물관.

34) 목포대학교박물관, 2002, 『문화유적분포지도-전남 해남군-』.

아직 성지(城址)와 봉수에 대한 정밀한 발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금성산성지, 우항리성지 등은 삼별초 항쟁과 관련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체계적인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당시 항쟁의 구체적인 성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옥산고성지(계동토성)는 해남읍성지로 이설(移設)하기 전의 치소로 비정 되는데 정밀한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당시 해남의 치소 이설에 대한 구체적인 성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역사학적 환경

해남지역에는 여러개의 행정구역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三國史記』에는 백제시대에 현산면 일대에 자리잡았던 새금현(塞琴縣)과 화원반도의 황술현(黃述縣), 마산면과 계곡면 일원의 고서이현(古西伊縣)이 기록되어 있다. 이들 3개 현 이외에도 일정한 세력을 형성하였던 곳으로는 송지면 일대와 북일면 일대, 해남읍과 삼산면 일대, 옥천면 일대로 추정된다.

해남지역의 명칭 변화를 보면 현재의 현산면과 화산면 지역의 새금현이 침명현(浸溟縣)으로, 마산면과 산이면 지역의 고서이현이 고안현(固安縣)으로, 화원반도에 있던 황술현이 황원현(黃原縣)으로 개칭되었다. 고려 태종 23년(940)에는 침명현을 해남현으로, 고안현을 죽산현으로 개칭하였다.

현재와 유사한 해남의 영역은 조선시대에 들어와 이루어졌다. 조선 태종 9년(1409)에 진도와 해남을 합하여 해진군으로 편제되었다가 세종 19년(1437)에 진도와 해남을 분리하여 해남현을 복설하였고, 이 시기에 해남읍성의 축조와 수영·만호진성 등의 군사시설과 봉수·역원 등의 체제도 정비되었다. 세종 20년(1440)에 우수영의 전신이었던 수군처치사영이 무안 대굴포(현재의 함평군 엄다면 대곡리)에서 목포를 거쳐 현재의 우수영으로 옮겨 전라우도의 수군본영이 되었다. 세종 29년(1447)에는 신갈부곡이 영암에서 해남으로 이속되었다. 이후 많은 변화를 겪으면서 해남현은 현재의 해남지역과 거의 같은 범위를 결정하고 이후 조선 말기까지 커다란 변화 없이 존속되었다.

갑오개혁(1894) 이후 고종 32년(1895)에 지방관제 개편이 시행됨에 따라 해남군으로 승격되면서 현일면과 현이면을 군일면과 군이면으로, 황일면을 황원면으로, 황이면을 문내면으로 고쳤다. 다음해에는 도서지방을 완도군으로 이속시키는 한편 1906년에는 오랫동안 월경지로 남아있던 진도군의 삼촌면, 영암군의 옥천종면·북평종면·송지시면·송지종면 등 6개 면을 편입시켜 모두 23면이 되었다. 그 후 1914년 4월 1일 군·면 통폐합의 개편이 이루어지면서 해남과 인접한 완도, 강진지역 일부를 병합하여 총 13개 면으로 개편되었다. 이때의 13개 면은 북평면과 북일면을 제외하고 최근까지 유지

되어 왔다. 그 뒤의 부분적인 변화는 1971년 대통령령 제6543호에 의해 송지면 월송리가 현산면으로, 마산면 보평리가 해남읍으로 편입되었고, 1983년 대통령령 제11027호에 의거 북평면이 분면된 것 등이다. 이후 1990년 옥천면 봉황리가 강진군 도암면으로 편입되어 1읍 13면 510리로 조정되었으며, 1992년에 현재의 1읍 13개면 513리로 편제되었다.

조사지역인 화원면은 『호구총수』(해남)에 의하면 조선 시대에는 장목면(場木面)·장서면(場西面)에 해당하는 지역이었다. 『신증동국여지승람』과 『여지도서』에 장동면(場東面)이 언급되어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호구총수』의 장목면은 장동면이 잘못 표기된 것으로 여겨진다. 장동면은 뒤에 일부가 분리되어 관저면(管底面)이 되었다. 이러한 지명은 이곳의 황원목장(黃原牧場)에서 비롯하였다. 『여지고』에 의하면 진도의 감목관을 이곳으로 옮기고 진도를 속장으로 하였다. 감목관이 있던 지역을 관저면이라 하고, 그 서쪽을 장서면 그 동쪽을 장동면이라 하였다고 한다. 1914년 3개 면(관저면·장동면·장서면)과 문내면의 일부가 합쳐져서 화원면(花源面)이 되었다. 영암군은 한반도의 서남단에 위치하며, 전라남도의 서남단 지역과 중앙 지역을 연결해 주는 가교 역할을 하는 군으로 동쪽과 남쪽은 월출산 줄기를 경계로 장흥군·강진군·해남군과 접경을 이루고 있다. 또한, 서쪽으로는 영산강을 사이에 두고 목포시·무안군이 위치하고 있으며, 북쪽으로는 함평군·나주시와 접경을 이루고 있다. 영암군은 동경 126°21'~126°52', 북위 34°39'~34°56'에 위치하고 있으며, 2읍(영암읍, 삼호읍), 9개면(덕진면, 금정면, 신북면, 시종면, 도포면, 군서면, 서호면, 학산면, 미암면)으로 이루어져 있고 면적은 591.28km²이다.

3. 해남지역 청자의 현황과 성격³⁵⁾

1) 해남지역의 도자사적 배경

해남지역의 도자(陶瓷)와 관련된 문헌은 기록이 영세한 고려시대를 제외하더라도 조선시대 이후의 기록도 6건에 불과하다.³⁶⁾ 특히 『世宗實錄地理志』에 자기소(磁器所)

35) 韓盛旭, 2002, 「海南地域 靑瓷의 現況과 性格」, 『해남의 청자요지』, 목포대학교박물관.

36) ① 『世宗實錄地理志』 海珍郡條, 1454년

② 『經國大典』 1471년 처음시행, 1485년 완성간행.

③ 『戶口總數』 海南條, 1789년.

④ 『地方行政區域名稱一覽』 1912년.

⑤ 『朝鮮面里洞一覽』 1917년.

⑥ 『海南郡誌』 洞里名變更區域一覽表條, 1925년.

⑦ 김정호 『地方沿革研究』 1987년.

와 도기소(陶器所)가 각 1곳 있는데 이후의 『經國大典』과 『東國輿地勝覽』 등의 지리지에 도자에 대한 기록이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다. 이는 해남지역의 도자(陶瓷) 제작이 민수용으로 한정되어 소규모로 운영되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또한 조선시대 사회가 안정되면서 왜구의 침탈에서 벗어난 내륙지역(內陸地域)으로 도자(陶瓷) 산업의 중심이 이동되면서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된다. 이 같은 결과는 영암(靈巖)과 나주(羅州), 순천(順天) 등에 많은 사기장이 배치되고 있음에서도 알 수 있다.³⁷⁾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산이면과 화원면에 분포한 고려시대 청자 가마터를 제외한다면 타지역에 비해 조선시대 도자 가마터가 많지 않음에서도 알 수 있다.³⁸⁾



도면3. 해남군 해동지도

(1) 도자(陶瓷) 가마터

해남지역은 송지면 군곡리 패총에서 토기 가마터가 발굴 조사되어³⁹⁾ 일찍부터 도자 제작 기술이 발달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산이면 진산리 일대 청자 가마터(사적 제 310호)와 화원면 신덕리 일대 초기 청자 가마터가 널리 알려져 있다. 산이면 일대 가마터는 구성리와 진산리, 초송리 등에서 모두 106기가 조사되었으며⁴⁰⁾ 화원면 일대에서

37) 『經國大典』 工典 外工匠條, 1471년 처음시행, 1485년 완성간행.

38) 曹基正, 1987 「전남 고도요지 분포현황」 『해남군 산이면 녹청자도요지』 목포대학교 박물관, 25~26쪽.

39) 崔盛洛, 1989 『海南 郡谷里 貝塚』 III, 木浦大學校 博物館.

40) ① 尹龍二, 1985 「陶磁器」 『莞島海底遺物』 文化財管理局.

② 曹基正, 1987 『海南郡 山二面 綠靑磁陶窯址』 木浦大學校 博物館.

③ 崔盛洛 외, 1992 『海南珍山里 綠靑磁窯址』 木浦大學校 博物館.

④ 崔盛洛 외, 2001 『영산강 금호 1-1 공구 · 마산 2공구 내부개답공사지역 문화유적지표조사보고』 木浦大學

는 모두 56곳의 초기 청자가마터가 조사되었다. 이 곳은 소규모 단일 지역에 짧은 시기에 축조된 가마로는 밀집도가 가장 높은 지역이다. 또한 수적인 면에서도 180여기가 분포되어 있는 강진군 대구면 일대 청자가마터에⁴¹⁾ 버금가는 대규모 집단 가마로 한국 도자사 연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곳이다. 따라서 초기 청자 제작기에 도입된 양 지역의 청자 제작 기술과 양식, 세력 집단 등에 대한 상호 비교가 요구되고 있다.

그리고 진산리 제17호 가마터가 발굴 조사되어 가마 구조 등 많은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⁴²⁾ 또한 완도 어두리 해저 출토 도자(30,673점)의 생산지가 산이면 진산리 일대임이 밝혀져 해남 지역 도자 문화의 의미가 더욱 증대되었다.⁴³⁾ 이들 고려 청자 가마터 이외에도 해남 지역은 분청자(12), 백자(17), 용기(22) 가마터 등이 분포하고 있다.

표 1. 해남지역 도자 가마터 현황

소재지		내용	
계곡	당산 당산	독골	
	당산 당산	사그점등(사기점), 백자	
	신평 해월	도깃굴	
마산	맹진 월암	독골	
	상동 호교	분청	
	연구 신당	점등(용기점)	
북일	금당 금당	사그점(사기점) 白瓷	
	운전 장수	독죽골	
	운전 장수	장수저수지 윗골 白瓷	
북평	서흥 신평	독골	
	서흥 목동	粉(「內贍」銘), 土器	
	평암 안평	사기점, 粉靑, 白瓷	
산이	금호 금호	용구점(용기점)	
	구성·진산·초송	靑瓷	
	노송 건촌	사그점(사기점)	
	덕송 황조	사불그미(사기점)	
	덕호 학림	甕岩里(甕店, 용점리: 용기점)	
	상공 상공	독점(용기점)	
삼산	구림 매정	백토클재(백도재, 백도치, 점재:백토 생산과 사기점)	
	봉학 봉학	점등, 용기점	
	봉학 웅암	독바우(웅암, 웅암리)	
	상가 계동	店(沙店, 사그점 : 사기점)	
	송정 도토	道吐	
	원진 농암	굴등(용기가마)	
송지	군곡 방처	토기가마	

校 博物館.

⑤ 해남녹청자재현 추진위원회, 2001 『海南靑瓷 集團陶窯址 性格과 編年에 關한 考察』.

41) 海剛陶磁美術館 『康津의 靑磁窯址』 1992.

42) 崔盛洛 외, 1987 『海南 珍山里 綠靑磁陶窯址』 木浦大學校 博物館.

43) ① 尹龍二, 1985 『陶磁器』 『莞島海底遺物』 文化財管理局.

② 李松熹, 2000 「莞島海底 出土 磁器를 통한 綠靑瓷 研究」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③ 曹基正, 1987 『海南郡 山二面 綠靑磁窯址』 木浦大學校 博物館.

④ 해남녹청자재현 추진위원회, 2001 『海南靑瓷 集團陶窯址 性格과 編年에 關한 考察』.

	마봉	독점재, 寺址골	
	미야 미야	도가지배미	
	산정 산정	店터	
	서정 등리	점등, 점골	
옥천	백호 가성	백춧등(백툫등, 白土磴 : 백토 생산)	
	백호 가성	사루골(사라향 : 사기점) 白瓷	
	성산	粉靑	
	신죽 가곡	사구정이(사우정이 : 사기점)	
	용동 신동	白瓷	
	용동 이목	앞골 白瓷	
	용동 이목	옹골(옹굴, 엉골)	
	용동 이목	뒷골 土器	
	용산 용정	독정골(독그릇점)	
	용산 용산	店(점등 : 옹기점)	
	용산 용산	점고랑(옹기점)	
해남	내사 장생	독죽골	
	백야 백야	히재(白也峙, 白峙, 白也 : 백토 생산)	
현산	만안 만안	도적골(도독골)	
	만안 미세	점재(사기점) 白瓷	
화산	석호 도립	점등고개	
	월호 동하	甕店(옹기점)	
	율동 율동	점등(옹기점)	
	평호 사포	점등(옹기점)	

2) 해남지역(海南地域) 청자(靑瓷)의 현황(現況)

(1) 화원면(化源面) 지역(地域) 가마터⁴⁴⁾

화원면은 해남군 북서쪽 끝에 있는 화원반도의 중심 지역으로 목포시와 인접해 있다. 이곳은 삼면이 바다이며 남북으로 길게 산맥이 뻗어 있어 산악이 많고 평야가 적어 해변산중(海邊山中)의 지형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산들이 완만한 경사의 구릉들로 이루어져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다.

화원면 가마터의 중심은 신덕리 일대로 신덕 저수지를 중심으로 사방이 나지막한 산들로 둘러싸여 있다. 가마터는 신덕 저수지 일대와 국도 양편의 구릉과 골짜기, 경작지 등에 밀집 분포되어 있는데, 훼손이 적고 퇴적층이 두터워 보존 상태가 비교적 양호하다. 이들 가마터는 이미 알려져 있었으나⁴⁵⁾ 학술 조사는 국립광주박물관에서 실시하여 2000년 15곳의 가마터를 정리하였다. 이번 2001년 목포대학교 박물관 조사에서는 41곳이 추가 조사되었다. 마을별로는 신덕리 54곳, 금평리 2곳이며 개별 가마터는 80~90기가 분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초기 청자 가마가 집단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곳은 해남 화원면 지역이 유일하다. 따라서 우리 나라 자기 발생의 단서와 초기 청자의 기형 변화를 파악하는데 매우 중요한 가마터로 주목받고 있다.

44) ① 金誠龜 외, 2000 『海南 新德里 靑磁陶窯址 情密地表調査』 國立光州博物館.

② 해남녹청자개발재현 추진위원회, 2001 『海南靑瓷 集團陶窯址 性格과 編年에 關한 考察』.

45) 한글학회, 1984 『한국지명총람』 16, 250쪽.

(해남군 화원면 신덕리 사동마을) 정-골[마을]뱀골 아래에 있는 마을. 옹기점이 있었음.

출토 유물은 청자(靑瓷), 흑유(黑釉), 도기(陶器), 요도구(窯道具) 등이 있다. 청자의 기종은 대접과 완, 접시, 화형접시, 병, 유병, 편병, 항아리 등으로 타 지역 가마에 비해 단순하다. 이들 기종은 초기 청자 가마들 즉, 봉천군 원산리와 고양시 원흥동, 양주군 부곡리, 시흥시 방산동, 용인시 서리, 서산군 오사리, 고창군 용계리, 진안군 도통리, 강진군 삼흥리·용운리, 고흥군 운대리 등에서 출토된 유물들과 매우 유사하다. 문양은 일부 음각선대를 제외하고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받침은 내화토 맞음에 모래와 수비토가 혼합되어 있다. 또한 연질 도기질에 녹색 유가 얇게 시유된 것들은 보령 사호리 가마터 출토품과 비견할 수 있다. 이들은 도기 제작술을 계승한 초보 단계의 청자로 추정된다. 그리고 중부권 초기 가마들이 백자 전용 또는 백자·청자 겸용 가마인데 비해 화원면 가마에서는 청자만이 확인되고 있다.

흑유(黑釉)는 반구병과 편병, 유병, 항아리 등 저장 용기 또는 운반 용기를 중심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들 흑유는 영암 구림리 등 신라통일기 전통 도기 제작 기법을 바탕으로 제작하고 있어⁴⁶⁾ 해남 청자가 전통적 도기 제작 기술을 바탕으로 청자 제작 기술을 도입하였음을 알려 주고 있다. 양질 청자 제작 가마터에서는 저장 용기 등 모든 제품을 청자 또는 백자로 제작하지만 해남처럼 조질 청자 제작 가마에서는 음식용기와 저장용기에 질적 차이가 있다. 즉 음식 용기는 양질로 제작하지만 저장 용기는 조질로 제작하는 질적 차이가 있다. 따라서 흑유 출토량에 따라 가마의 성격을 유추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곳 출토 흑유는 고흥 운대리 가마터와⁴⁷⁾ 강진 가마터 흑유⁴⁸⁾와의 비교 연구는 물론 청자 발생기 청자와 흑유 간의 관계를 밝힐 수 있는 좋은 자료라고 생각된다.

요도구는 갑발과 갑발 받침, 도지미 등이 출토되고 있다. 갑발은 통기공(通氣孔)이 있는 원통형과 측면에 음각 표시가 있는 갑발 등 용인 서리와 시흥 방산동 등 타 지역 초기 갑발과 유사한 형식도 출토되고 있다. 갑발 태토는 청자 태토와 유사한데, 이곳 갑발들은 강진군 대구면 출토 갑발에 비해 대부분 거칠다. 이는 근본적으로 청자 태토에서 오는 결과라고 하겠다. 그리고 대부분의 갑발을 재활용 하고 있어 화원면 지역 갑발의 내화도가 매우 우수하였음을 알 수 있다.

화원면 출토 청자의 품질은 해무리굽 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조질 중심이다. 해무리굽 완은 타기종에 비해 태토와 유색 등이 상대적으로 우수하며 1점씩 갑번(匣燔)하였다. 그러나 그 외의 대부분은 도지미를 이용하여 포개어 번조하고 있으며 유태(釉胎)가 해무리굽 완에 비해 거칠다. 즉 조질과 양질에 따라 번조 방법과 태토, 유색 등이 상이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초벌편들이 대부분 가마에서 출토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청자의 유층(釉層)이 얇은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재벌품이 없다는 것은 조질품을 생산하였기 때문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곳 제작 집단이 전통 도기 제작술을 계승하고 있어 기존 도기 제작처럼 초벌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

46) ① 梨花女子大學校博物館, 1988 『靈巖 鳩林里 土器窯址發掘調査 1次發掘調査中間報告』

② —————, 1999 『영암의 도기전통과 鳩林陶器』

③ —————, 2001 『史蹟 338號 靈巖 鳩林里 陶器窯址 2次 發掘調査 報告書』

47) 國立光州博物館, 1996 『고흥 운대리』

48) 고흥도예문화관 소장품으로 강진군 대구면 출토품으로만 정리되어 있다.

다.

화원면 출토 청자는 해무리굽 완과 내화토 빗음, 통기공(通氣孔) 갑발 등에서 초기 청자의 요소를 지니고 있다. 해무리굽 완의 경우 내저곡면과 내저원각이 공존하며 굽 바닥 너비도 다양하다. 즉 고식 해무리굽에서 변형 해무리굽까지 짧은 시기에 변천 소멸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초기청자의 대표적 기형 중 하나인 화형접시는 외면에서 살짝 눌러 제작하였는데 화형접시에서는 퇴화 단계의 것으로 용인 서리 3기층과 시흥 방산동 후기층에서 출토된 화형 접시와 유사하다.⁴⁹⁾ 따라서 화원면 청자의 제작 기간은 초기 청자 제작 시기에 도입되어 50년 내외의 매우 짧은 기간 동안 운영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2) 산이면(山二面) 지역(地域) 가마터⁵⁰⁾

해남군 산이면 진산리를 중심으로 산이반도(山二半島)에 분포하는데 북쪽은 영암(靈巖) 삼호반도(三湖半島), 남서쪽은 해남(海南) 화원반도(化源半島)와 접해 있다. 가마터는 초성리 남쪽에서 진산리에 이르는 약 6km의 구 해안선에 집중적으로 산재한다. 이곳은 경사가 완만한 낮은 구릉지대로 질 좋은 점토 광맥이 해안 단애면을 따라 곳곳에 노출되어 있어 리를 채취하여 쉽게 도자를 제작할 수 있었다. 또한 예전에는 높이가 낮은 야산 구릉이었기 때문에 삼림이 풍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지형이 점토와 황토로만 이루어져 바닷물에 의한 침식이 지속되어 가마가 유실되는 등 원래의 지형이 크게 변형되었다. 현재는 영산강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간척되어 바닷물에 의한 유실은 없다.

가마터는 산이반도 서북단의 구성리 2기와 반도 중간지점의 진산리 남쪽 해안과 내륙 연결 지역에 80기, 초송리 24기 등 모두 106기가 분포하고 있다. 퇴적층은 현재 논으로 개간된 옛 모래사장에서 대부분 확인되었으며 퇴적이 잘 남아 있는 5곳(4,022평)이 사적지로 지정되었다.

출토 도자류(陶磁類)는 청자류(靑瓷類)와 흑갈류자기(黑褐類瓷器), 회청색(灰靑色) 연질(軟質)·경질도기(景質陶器) 등이 있으며 극히 소량의 백자편이 확인되고 있다. 이들 중 청자류는 순청자(純靑磁)와 철채청자(鐵彩靑瓷), 철화청자(鐵畵靑瓷), 철백화청자(鐵白畵靑瓷), 음양각청자(陰陽刻靑瓷), 투각청자(透刻靑瓷), 상형청자(象型靑瓷), 퇴화청자(堆花靑磁), 박지청자(剝地靑瓷), 흑갈유청자(黑褐釉靑瓷) 등이 확인된다. 요도구(窯道具)는 경사진 원형(개떡형) 도지미[陶枕]와 구멍과 기호가 새겨진 원통형 갑발, 그리고 가마벽 편과 조개 껍질, 규석 등이 발견되었다.

49) ① 李鍾玟, 2000 「始興 芳山洞 初期靑磁 窯址 出土品을 통해 본 中部地域 埴築窯의 運營時期」 『美術史學研究』 228-229, 韓國美術史學會 73쪽.
② 崔 健, 1995 「高麗靑磁의 發生問題-高麗靑磁 언제 어떻게 만들어 졌나-」 『美術史論壇』 創刊號, 韓國美術研究所, 279-283쪽.

50) ① 尹龍二, 1985 「陶磁器」 『莞島海底遺物』 文化財管理局.

② 曹基正, 1987 『海南郡 山二面 綠靑磁陶窯址』 木浦大學校 博物館.

③ 崔盛洛 외, 1992 『海南珍山里 綠靑磁窯址』 木浦大學校 博物館.

④ 해남녹청자재현 추진위원회, 2001 『海南靑瓷 集團陶窯址 性格과 編年에 關한 考察』.

청자류는 거친 태토(胎土)에 조잡한 유약(釉藥)이 시유(施釉)된 조잡청자(組質靑瓷)와 정선된 회청색 바탕 흙에 좋은 유약이 시유된 양질청자(良質靑瓷)로 나누어지는데, 조질의 녹청자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기벽은 얇으며 대접과 접시의 경우 구연부(口緣部)는 내만형(內灣形)이 일부 있으나 대부분 외반(外反)되고 동체부(胴體部)는 S자 곡선을 이루며 굽은 대마디형과 수직형, V자형 등으로 굽 깎기가 단정하지 않다. 또한 태토는 청백색과 회백색, 회색, 회흑색, 흑색 등으로 철분과 모래가 섞인 조점토를 사용하고 있어 이들 잡물 때문에 유면이 거칠다. 고급 청자는 이들 점토 중에서 모래가 전연 섞이지 않은 질 좋은 점토를 사용하여 만들었다. 유(釉)는 태토에 철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녹갈색 또는 암녹색을 띠고 있다. 그러나 일부 양질의 담청녹색의 청자유가 시유된 청자편도 있다. 가마에 따라 다른 듯 굽 주위를 시유한 것과 시유하지 않는 것이 섞여 있다. 번조(燔造)는 회백색 굴 껍질 가루와 내화토 가루 등을 굽바닥 4~5곳에 얇게 받쳐 구웠으며, 대접과 접시는 내저면(內低面)에도 받침을 받쳐 포개 구웠다. 그릇의 종류는 대접과 접시류가 가장 많이 출토되며 발(鉢)과 완(盪), 매병(梅瓶), 반구병(盤口瓶), 병(瓶), 호(壺), 항(缸), 탁잔(托盞), 합(盒), 주전자(酒煎子), 반(盤), 장(長鼓) 등이 출토되고 있다. 문양은 크게 순청자와 철화청자로 구분된다. 순청자도 대부분 무문이며 내측면에 일조(一條)의 음각선대(陰刻線帶)나 연판문(蓮瓣文)과 국화문(菊花文), 초문(草文) 등을 음각으로 거칠게 시문한 것이 소량 출토되고 있다. 양각은 연판문이 소량 출토되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가마터에서 출토되는 철화청자는 병, 장고, 주전자, 대반(大盤)을 중심으로 완, 잔 등에서 확인된다. 문양은 간략한 초문(草文)과 초화문(草花文), 모란문(牡丹文), 당초문(唐草文), 국화문(菊花文) 등이 자유분방하게 시문되어 있다. 유(釉)는 대체로 산화된 녹갈유 또는 갈색을 띠는 청자유를 시유(施釉)하였다. 또한 철채청자매병(鐵彩靑瓷梅瓶)과 철채철백화청자매병(鐵彩鐵白畫靑瓷梅瓶), 철백화청자(鐵白畫靑瓷) 등이 출토되어 이들의 제작지를 알려주고 있다.

대부분의 가마터에서 도기류가 출토되어 청자와 함께 제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흑갈색 도기류는 잡유(雜釉)로도 불리는 것으로 회흑색 또는 회색의 거친 태토 위에 흑갈색과 흑색의 질고 불투명한 유를 두껍게 바른 시유(施釉) 도기(陶器)와 시유하지 않은 무시유(無施釉) 도기(陶器)가 함께 출토되고 있다. 기종(器種)은 호(壺)와 반구병(盤口瓶), 편병(扁瓶), 대발(大鉢), 완(盪) 등이 있는데, 광구(廣口)의 구연부(口緣部)와 풍만한 동체부, 평저 굽을 지닌 반구호가 많이 발견되고 있다. 또한 경질과 연질의 도기류와 시루편이 확인되는데, 대부분 경질의 회청색 또는 회흑색의 호편으로 굽은 평저형이다. 이들은 기벽이 두껍고 구연부는 외반되며 경부에는 음각 과상문이 있다. 동체부 전면에는 승석문이 새겨져 있어 신라통일기 말의 도기 전통을 계승한 것으로 추정된다.

산이면 지역 청자는 조질 청자가 주 생산품으로 일부 철채청자(鐵彩靑瓷), 철화청자(鐵畫靑瓷), 철백화청자(鐵白畫靑瓷), 음양각청자(陰陽刻靑瓷), 투각청자(透刻靑瓷), 상형청자(象型靑瓷), 퇴화청자(堆花靑磁), 박지청자(剝地靑瓷), 흑갈유청자(黑褐釉靑瓷) 등의 고급청자를 생산하였다. 그러나 이들 고급 청자도 해남에서의 상대적인 고급품으로 강진의 양질 청자에 비하면 저급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산이면은 고려 청화청자의

대표적 생산지로 이의 변천을 살펴하는데 매우 중요한 유적이다. 또한 완도 어두리 해저 출토 청자(30,673점)와 산이면 제작 청자가 기형과 제작 수법, 요도구 등이 동일하여 이들이 이곳에서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⁵¹⁾ 산이면과 함께 조질화된 제품을 생산하고 있어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다고 할 수 있겠다.⁵²⁾ 산이면 지역 청자의 제작 시기는 선후의 차이는 있으나 11세기대를 중심으로 운영된 후 점차 쇠퇴 소멸한 것으로 추정된다.⁵³⁾

3) 해남지역(海南地域) 청자(靑瓷)의 성격(性格)

가마터가 분포한 산이면과 화원면 지역은 해양성 기후의 영향을 받아 겨울과 여름의 기온 차가 심하지 않아 일년 내내 온난하여 사람이 거주하기에 적당하다. 또한 계곡을 끼고 있어 땀감과 수량이 풍부하며 바닷길을 통해 공급이 매우 원활하여 가마터가 발달하기에 아주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화원면 56곳과 산이면 106기 등 국내에서 가마터 분포 밀집도가 가장 높은 지역이다.

이곳 출토 청자의 기종(器種)과 기형(器形), 유색(釉色)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화원면 청자가 산이면 출토품보다 이른 시기에 제작되었으며, 화원면에서 산이면으로 제작 집단이 이동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화원면 청자는 기형(器形)으로 보아 자기 발생기에 해당하는 초기 청자에 해당하며 조업 시기가 매우 짧은 것이 특징이다. 산이면도 고려 전기의 짧은 시기에 한정적으로 생산하였다. 이처럼 운영 시기가 짧은 것은 일시에 많은 가마가 운영되어 주변의 땀감과 태토가 고갈되어 나타난 결과로 추정된다. 또한 강진 유형의 고급 청자가 정착되고 부안 지역으로 고급 청자 가마가 확대되면서 보다 품질이 낮은 해남 청자는 쇠퇴한 것으로 생각된다.

화원면 지역의 입지 조건은 해변에 위치하고 있으나 보다 내륙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이는 강진과 중부 지역 대부분의 초기가마터와 매우 유사한 입지 조건이다. 즉 이들 가마터들은 해안과 가까운 산간에 취하고 있어 하나의 특징을 이루고 있다.⁵⁴⁾ 산이면 지역은 해안선에 분포하는데 이는 당시의 해안선을 알 수 없어 정확한 사정은 알 수 없으나 당시에라도 바로 해안과 연접하였으리라 추정된다. 따라서 바다와 인접한 산이면 지역 태토는 염분을 많이 축적하고 있어 조질 청자가 될 수 밖에 없는 제작 환경을 가지고 있다. 또한 청자 제작에 사용하는 물도 상대적으로 염도가 높아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즉 산이면 청자는 태토와 물 등의 원료가 서로 영향을 주어 조질 청자가 제작되었다고 추정한다. 또한 해남 청자는 대부분 태토를 정제하지 않고 있는데, 정제하지 않은 태토 내에 함유된 철 성분은 번조 과정에서 분출되어 유색에 절대적 영향을 준다.

51) ① 尹龍二, 1985 『陶磁器』 『莞島海底遺物』 文化財管理局.

② 李松熹, 2000 『莞島海底 出土 磁器를 통한 靑瓷 研究』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③ 崔盛洛 외, 1992 『海南珍山里 靑磁窯址』 木浦大學校 博物館.

④ 해남녹청자재현 추진위원회, 2001 『海南靑瓷 集團陶窯址 性格과 編年에 關한 考察』.

52) 國立中央博物館, 1990 『仁川景西洞靑磁窯址』

53) 산이면 지역 청자가마터는 선후 차이가 존재하고 있으나 유물이 대부분 지표 조사품이므로 확정할 수 없다.

54) 이는 번조 시에 오는 해풍의 영향에서 벗어나면서 바닷길을 이용한 기술의 유입과 자기의 공급을 배려한 것으로 생각된다.

해남 지역 청자는 강진 지역 청자에 비해 대부분 질이 떨어져 지방과 하급 관청 등의 수요를 위해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일부 고급품도 제작되었는데 화원면 청자의 경우 해무리굽 완은 질 좋은 태토와 유약을 사용하였으며 내저면에 받침 흔이 없고 갑발 내에서 번조하여 제품이 매우 우수하다. 산이면의 경우는 철화청자와 철채청자 등이 매우 우수한데, 특히 장고와 항아리, 병, 주전자, 대야 등은 진산리에서만 출토되고 있다. 또한 양은 적지만 갑발에 넣어 우수한 유약과 세련된 문양을 사용하여 정성을 들인 양질품도 확인된다. 그러나 이들 양질품도 해남 청자에서의 상대적인 양질품이며 강진 청자에 비하면 조질품으로 해남 청자와 강진 청자의 수요층이 상이하았음을 알 수 있다. 강진과 해남 청자는 유약과 태토, 번조, 문양 등에서 차이가 나타나는데 강진은 유층이 두텁고 태토도 매우 정제되어 있으며 대부분 재벌을 사용하고 있다. 문양도 강진은 음양각(陰陽刻) 등의 각기법(刻技法) 중심이며 해남은 철화(鐵畵) 등 화기법(畵技法) 중심으로 시문하고 있어 그 차이를 쉽게 알 수 있다.⁵⁵⁾ 즉 해남과 강진은 수요층에 따른 역할 분담 또는 용도 등에 따른 품질 분화가 이루어 졌던 것으로 추정된다. 용도에 따른 품질 분담은 남부 지방 대부분 유적에서 강진 유형과 해남 유형의 청자가 함께 출토되고 있는 것에서 확인된다.⁵⁶⁾ 이들 유적에서는 대부분 병과 호 등 저장 용기는 해남 유형이 대접과 접시 등 음식 용기는 강진 유형이 출토되고 있다. 이는 해남 강진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장흥군 유치면 대리의 고려시대 고분에서 공반 출토된 청자에서도 쉽게 확인 할 수 있다.⁵⁷⁾

그리고 수요층 파악을 위해서는 해남 청자에 대한 과학적 분석과 통계가 축적되어야 하겠다. 이를 토대로 소비자 출토 청자의 분석과 비교한다면 해남 청자의 유통 구조와 수요층을 확인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⁵⁸⁾ 현재 해남 청자에 대한 관심은 많은 증대되고 있으나 대량 생산된 해남 청자의 소비지 연구는 진전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충분한 연가구 있어야 해남 청자의 연구가 심층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그리고 도자는 생산지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소비지의 연구와 소비지의 출토 층위에 의한 편년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화원면과 산이면 청자의 과학적 분석과 제작 기법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진행되어 이들의 유사성과 상이점 보다 명확하게 밝혀져야 하겠다.

해남 지역 대부분 가마터에서 도기들이 함께 출토되고 있어 이들이 동일 가마에서 생산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화원면 출토 흑유는 신라통일기말에 운영되었던 영암 구림리 도기 가마 출토품과 유사하여⁵⁹⁾ 이들이 도기 가마의 전통을 바탕으로 중국 또

55) 崔 健, 1998 「靑磁窯址의 계보와 전개」 『美術史研究』 12, 미술사연구회, 8~9쪽.

56) 양질 청자의 주 사용처인 개경 주변의 조사 성과를 알 수 없어 확인할 수 없으나 남부 지방에서는 기층에 다른 품질의 분화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강진에서는 다양한 기층의 청자가 함께 생산되고 있어 개경 중심의 양질 청자 수요처는 모든 기층을 강진 유형으로 사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57) 목포대학교박물관 외, 2001 「탐진 다목적(가물막이)댐 수몰지역내 문화유적 발굴조사 개요」

58) 해남 청자의 과학적 분석은 일시적인 계획이 아닌 장기적으로 가마터별 시기별로 충분한 시료를 확보하여 시행되어야 하겠다.

59) ① 梨花女子大學校博物館, 1988 『靈巖 鳩林里 土器窯址發掘調査 1次發掘調査中間報告』

② —————, 1999 『영암의 토기전통과 鳩林陶器』

③ —————, 2001 『史蹟 338號 靈巖 鳩林里 陶器窯址 2次 發掘調査 報告書』

는 중부 지역의 신기술을 받아들여 청자를 제작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중부지역이 벽돌로 가마를 축조하고 있는데 비해 이곳은 전통적인 방식인 진흙을 이용하여 가마를 축조하고 있음에서도 알 수 있다. 그리고 영산강 유역은 고화도의 용관묘를 제작하던 우수한 가마 축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중부 지역처럼 벽돌 가마의 필요성이 절실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⁶⁰⁾ 또한 중부 지역과는 태토와 유색 등에서도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서로 다른 제작 기술을 수용하여 자기를 제작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중국 자기 제작 기술은 오랜 시기 각 지역별로 다종 다양한 기형과 유색, 태토, 문양이 발전하고 있어 해남 청자와 중국과의 관련성도 보다 면밀하게 분석하여야 그 영향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중국 가마 축조술은 전축요(塼築窯) 뿐만 아니라 토축요(土築窯)도 존재하고 있어 이에 대한 연구도 병행되어야 하겠다. 따라서 현재는 해남 지역이 중부 지역보다 후행 시기에 자기를 생산한 것으로 편년되고 있으나 이들이 동시에 개시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즉 이들의 다양한 차이가 기술 도입지의 차이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부 지역 초기 가마들이 중국 월주요(越州窯)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면 해남은 월주요 이외의 지역으로부터 기술을 도입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해남 지역에 초기부터 많은 가마의 운영과 독창적인 도자문화(陶磁文化)가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닷길을 이용한 신속한 기술 유입과 용이한 원료 수급, 편리한 공급을 위한 지리적 유리함도 있었으나 이를 수용할 수 있었던 우수한 문화와 지방 세력이 존재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 도자 제작 세력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실체가 드러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청해진 장보고 대사 세력을 언급하고 있으나⁶¹⁾ 장보고 대사의 본거지인 청해진 유역에서 초기 청자가 전혀 출토되지 않고 있어⁶²⁾ 역사적 배경만으로는 장보고 대사 관련은 설득력이 약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영산강 유역을 중심으로 한 토착세력에 의한 제작 가능성을 앞으로 심층적으로 연구하여야 하겠다. 특히 신라통일기와 고려 전기에 해남과 강진 지역을 관할하였던 양무군(陽武郡)과 영암군(靈巖郡) 세력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하겠다.⁶³⁾ 이는 나주시 오량동과 신가리, 석전리 등의 영산강 유역에서 대단위 도기 가마터들이 계속 조사되고 있으며⁶⁴⁾ 이를 계승한 영암 구림리 도기가마의 제작 기술과 유사한 제품들이 해남 청자에서 확인되고 있어 제작 기술뿐만 아니라 제작 집단도 영산강에 기반을 둔 토착세력이었을 가능성이 많다. 또한 이들 영산강 중심의 나주와 영암 세력이 고려 건국에 깊숙하게 관련되어 있음에서도 이들 세력의 역할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60) 전축요는 토축요에 비해 노동력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축조술로 토축요 기술이 축적되어 있던 영산강 유역 자기 제작 집단에게는 전축요가 불필요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61) ① 姜鳳龍 「서남해 지방의 해양사적 위치와 도자기」 『海南靑瓷 集團陶窯址 性格과 編年에 關한 考察』 해남 녹청자 개발제한추진위원회, 2001.

② 吉岡完祐 「高麗靑磁의 發生에 關한 考察」 崇田大學校 博物館, 1979.

62) 國立文化財研究所, 2001 『將島 靑海鎮』

63) 崔盛洛 · 李海濬, 「海南地方의 文化的 背景」 『海南郡의 文化遺蹟』 木浦大學校 博物館 · 海南郡, 20~26쪽.

64) ①목포대학교 박물관 · 동신대학교 박물관, 2001 「나주 오량동 가마 유적-지도위원회 자료-」

②목포대학교 박물관 · 동신대학교 박물관, 2001 「금천-시계간 국가지원 지방도사업구간내 문화재 발굴조사 지도위원회와 현장설명회 자료」

해남 청자의 제작 시기에 대한 규명은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진전되어야 밝힐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즉 해남 청자의 연구는 이제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아직 제작 시기를 밝힐 수 있는 화원면 지역에 대한 발굴 조사가 시행되지 않고 있어 해남 자체의 상대 편년도 미흡한 실정에서 절대 년대를 비정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현재 타지역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추정할 수 있는 상대편년은 초기 청자 중에서 한 단계 늦은 것으로 파악된다. 즉 출토 유물의 기형 변화를 기준으로 편년을 제시하면 강진 용운리 9호와 용인 서리 3기층, 시흥 방산동 후기층, 여주 중암리, 봉천 원산리 2호 1차가마층 등과 유사한 시기로 추정된다.⁶⁵⁾ 또한 청자 굽에 약간의 상이점이 있으나 흑유가 공반 출토되는 고흥 운대리와 관련성도 보여주고 있다.⁶⁶⁾ 그러나 앞으로 발굴 조사가 진행되면 보다 이른 시기의 유물이 출토될 가능성과 해남 독자적 형식 변화가 확인될 가능성도 있다. 자기 발생은 크게 9세기설과 10세기설이 양분되어 있으나 절대적인 자료가 확보되지 않아 아직까지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⁶⁷⁾ 9세기 발생설은 시대적 상황과 중국과의 관계 등은 잘 설정되고 있으나 실제 이를 사용한 생활 유적지와 고분(古墳) 등에서 초기 청자가 전혀 확인되지 않는 단점이 있다.⁶⁸⁾ 10세기 발생설은 지나치게 실증 자료에만 의지하고 있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최근 대량 조사된 화원면 지역의 청자 가마터는 우리나라 자기 발생을 규명하는데 매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리라 생각된다. 그리고 초기 청자 제작기에 화원면에서 시작한 해남 청자는 멸감 등 원료 고갈에 의해 산이면으로 이동하여 11세기대를 중심으로 운영된 후 점차 쇠퇴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65) 海剛陶磁美術館 『康津의 靑磁窯址』 1992. 강진에서는 용운리 63호가 가장 이른 시기의 가마로 추정되고 있다.

66) 國立光州博物館, 1996 『고흥 운대리』.

67) ① 李鍾玟, 2000 「始興 芳山洞 初期靑磁 窯址 出土品을 통해 본 中部地域 博築窯의 運營時期」 『美術史學研究』 228·229, 韓國美術史學會 73쪽.

② 龍仁文化院, 2001 『龍仁 西里 高麗白磁 窯址의 再照明』

③ 崔 健, 1992~1994 「韓國初期靑磁靑磁의 分類と變遷-窯址의 出土品을 中心に」 『東洋陶磁』 22, 東洋陶磁學會.

④ ———, 1995 「高麗靑磁의 發生問題-高麗靑瓷 언제 어떻게 만들어 졌나-」 『美術史論壇』 創刊號, 韓國美術研究所.

⑤ ———, 1998 「靑磁窯址의 계보와 전개」 『美術史研究』 12, 미술사연구회.

⑥ ———, 1998 「高麗靑磁의 展開と性格」 『世界美術大展集』 東洋編 10, 小學館.

⑦ ——— · 李熙寬, 2001 「高麗初期 靑磁生産體制의 變動과 그 背景」 『美術史學研究』 232, 韓國美術史學會.

⑧ 韓國陶磁史研究會, 1990 『韓國 磁器 發生에 關한 諸問題』 韓國考古美術研究所.

68) 李鍾玟, 2000 「始興 芳山洞 初期靑磁 窯址 出土品을 통해 본 中部地域 博築窯의 運營時期」 『美術史學研究』 228·229, 韓國美術史學會 91쪽.

4) 해남 산이면 진산리 17호 가마터⁶⁹⁾



사진 1. 산이면 진산리 17호 전경



한자문화재



한자문화재

사진 2. 산이면 진산리 17호 출토유물



한자문화재



한자문화재

사진 3. 산이면 진산리 17호 출토유물

마을에서 북서쪽으로 약 500m쯤 떨어진 해안가에 위치하며, 12, 14, 15, 16호 가마터와 같은 번지 안에 있다. 이곳은 사적 제5지구 지역으로 1991년 목포대학교 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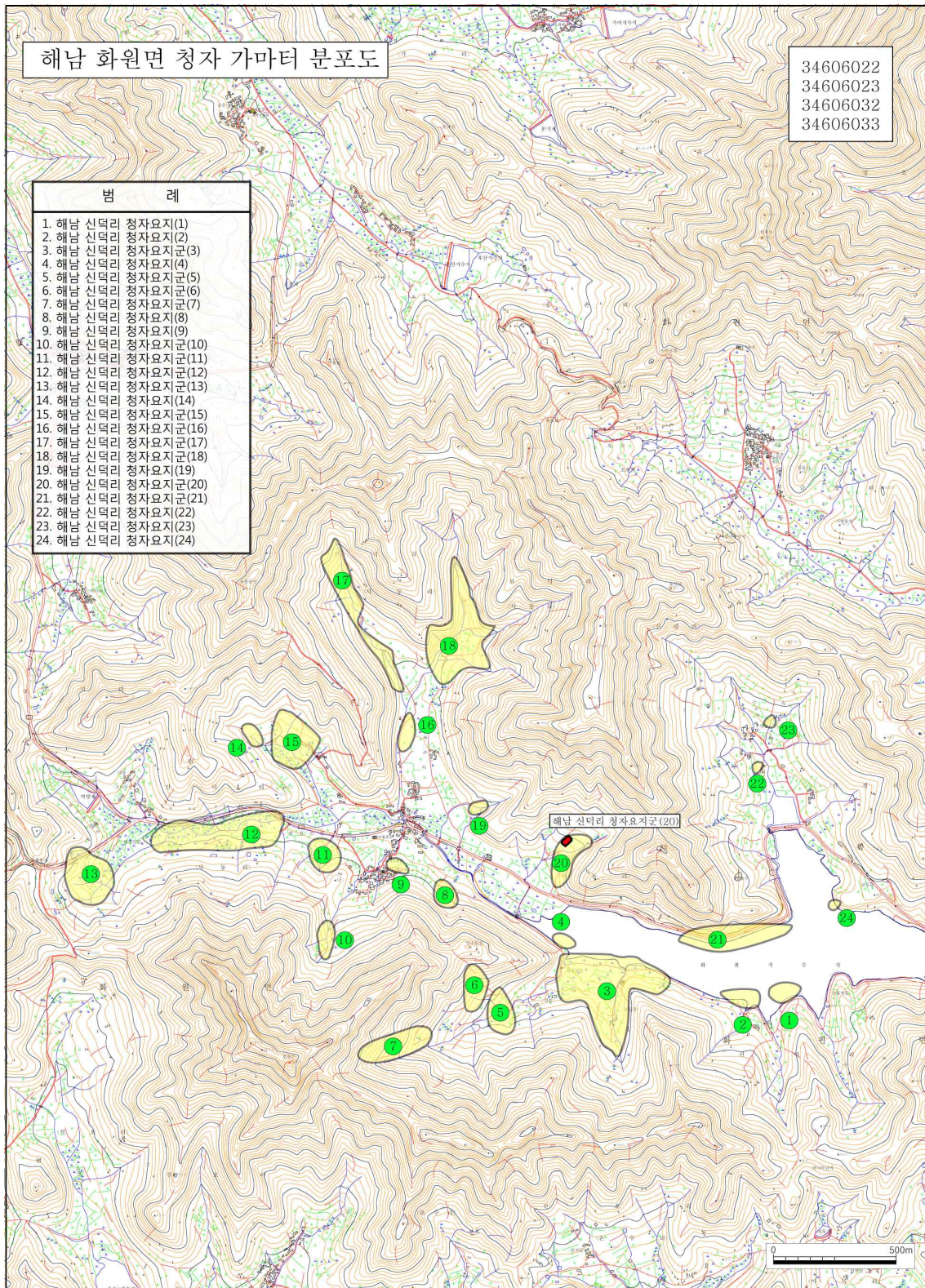
69) 崔盛落·崔健, 1992 『海南 珍山里 綠靑磁陶窯址』 木浦大學校 博物館·海南郡.

에서 발굴조사하였다. 가마는 거의 동-서방향으로 구릉 경사면을 이용한 반지하식 오름가마로 봉통부를 서쪽에 두고 있다. 구조는 봉통부와 몸체부, 굴뚝부로 나누어지며, 출입구는 몸체부 오른쪽 옆면에서 7개가 확인되었다. 모든 구조가 거의 완전한 형태로 남아 있으며 총 길이 24.5m, 벽 너비 120~130cm, 바닥 너비 100~120cm이다. 가마 벽은 일부 소량의 석재와 폐기된 가마 벽편들을 사용한 흔적도 보이나 주로 점토 덩어리를 이용하여 출조하였다. 부분적으로 1~4차례 보수한 흔적이 보인다. 바닥은 모래가 燒結되어 회색으로 단단하게 굳어 있으며 20~25°의 급경사를 이루고 있다. 가마는 앞선 가마의 퇴적층 위에 형성되어 있었다. 출토품은 일상 용기인 대접과 접시가 가장 많으며, 대접과 접시, 완 이외의 그릇은 무늬가 있고 바탕 흙과 유약 등 모든 면에서 우수하여 특별한 용도로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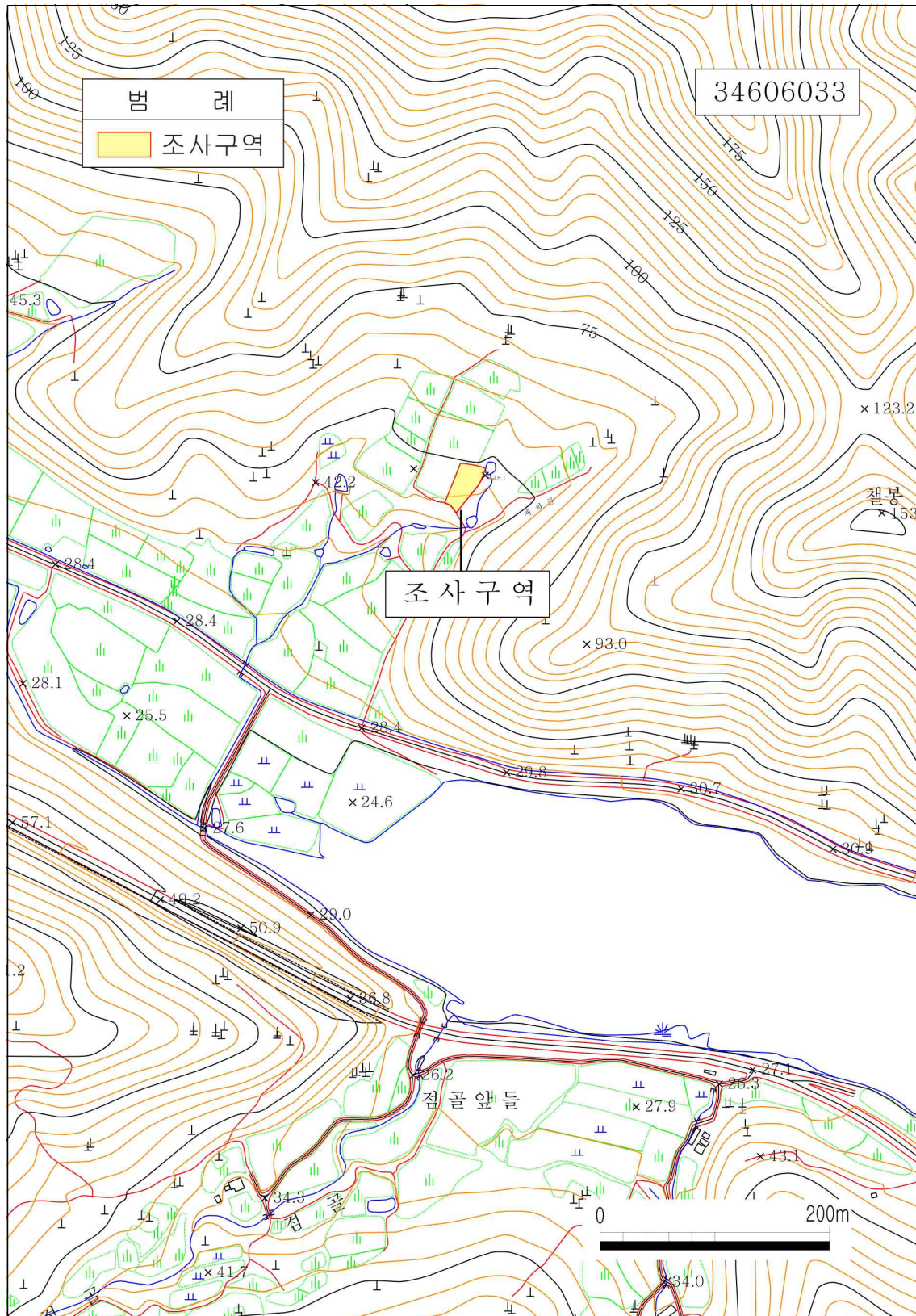
봉통부는 특별한 시설 없이 급경사를 이루며 바닥은 燒結에 의해 단단하게 굳어 있었다. 크게 4차례“ 보수하였는데 마지막 4차 봉통은 가마가 축소되면서 몸체부로 옮겨 사용되었다. 크기는 1차 봉통 120cm, 2차 봉통 100cm, 3차 봉통 90cm로 좁아지면서 높아지고 있다. 최종 봉통부의 火門을 이루는 양벽은 돌을 이용하여 좁히고 있다. 火門은 너비 66cm, 높이 35cm이다. 가마의 전체적인 구조가 잘 남아 있는데 비해 훼손이 심한 편이다.

출입구 시설은 가마의 오른쪽(남벽)에서 확인되었다. 火門에서 230cm, 굴뚝부에서 100cm 떨어진 사이에 7개가 있었는데, 1개는 점토덩어리로 막아 폐쇄된 상태로 조사되었다. 출입구의 동쪽벽 연결부는 유리질화가 잘 되어 있으나 서쪽벽 연결부는 확실하지 않아 풍향과 화력의 관계를 말해주고 있다. 출입구 부분은 유물이 놓여지지 않았고 사람의 출입으로 인해 편평해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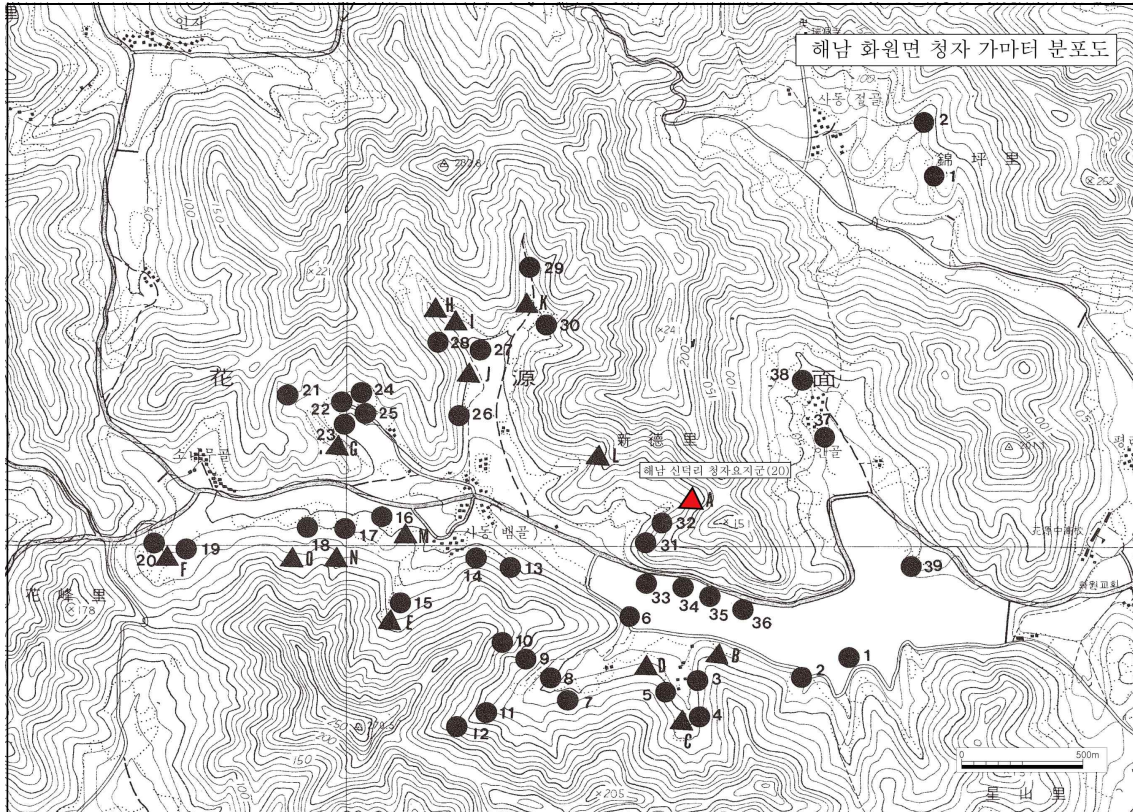
굴뚝부는 표토 바로 아래에서 전체적인 윤곽을 확인하였으나 경작으로 훼손되어 정확한 구조를 알 수 없다. 또한 壁體가 끝까지 연결되지 않고 있으며 바닥이 불규칙하게 축조되어 있다. 그러나 가마의 끝부분에서 65cm지점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어 이 부분이 굴뚝부로 추정되었다. 길이 65cm, 너비 60~110cm 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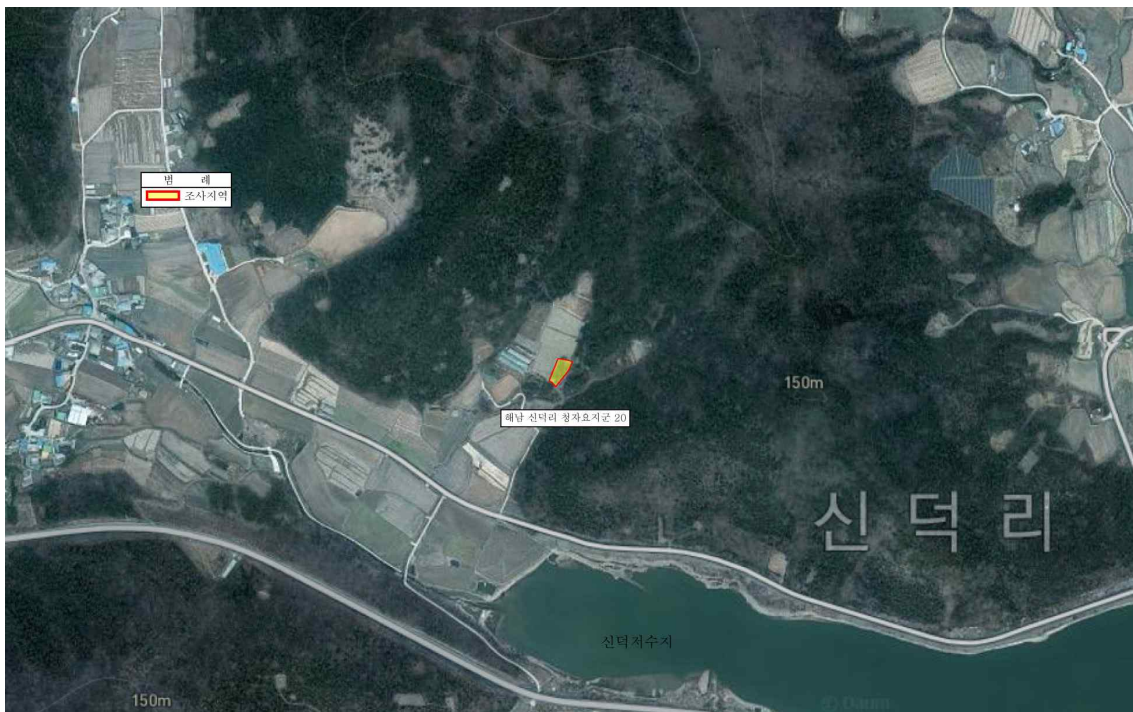
도면 4. 조사 대상부지와 주변유적 분포도(1/25,000)



도면 5. 조사 대상부지 위치도(1/5,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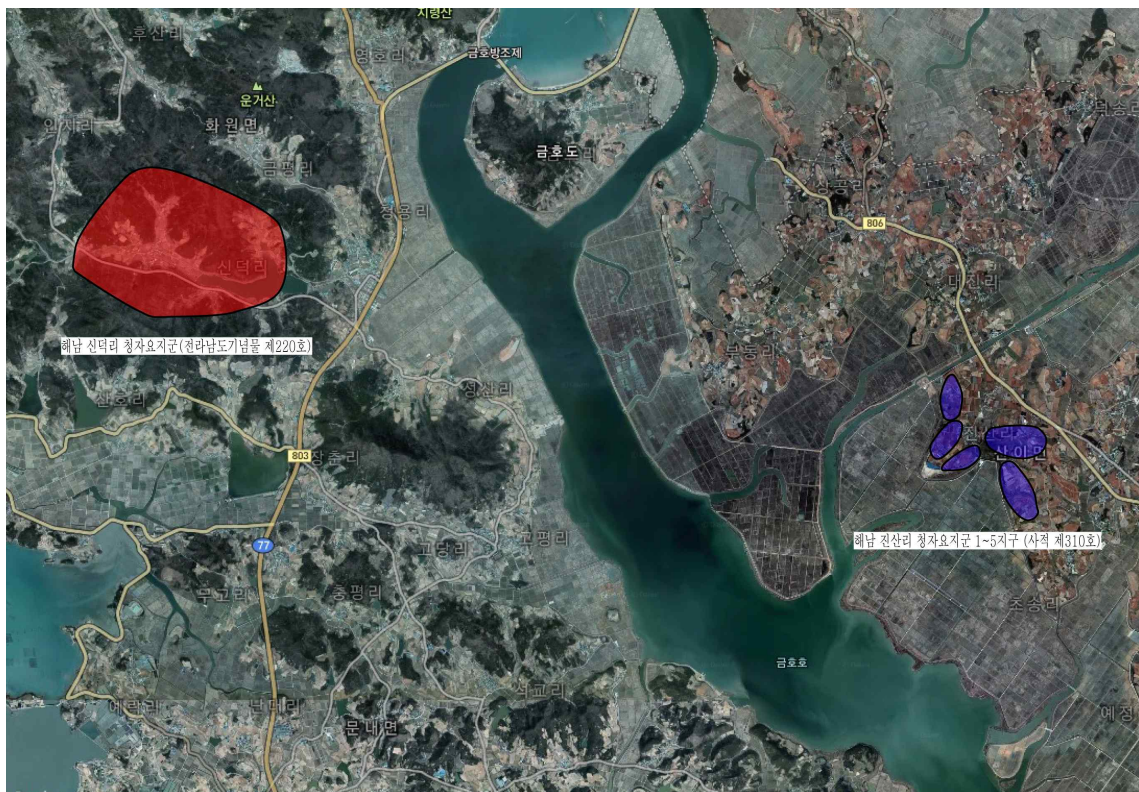
도면 6. 해남 화원면 청자 가마터 분포도(●:목포대학교박물관 조사 ▲:국립광주박물관 조사)



도면7. 조사 대상부지 위성지도(출처 : dau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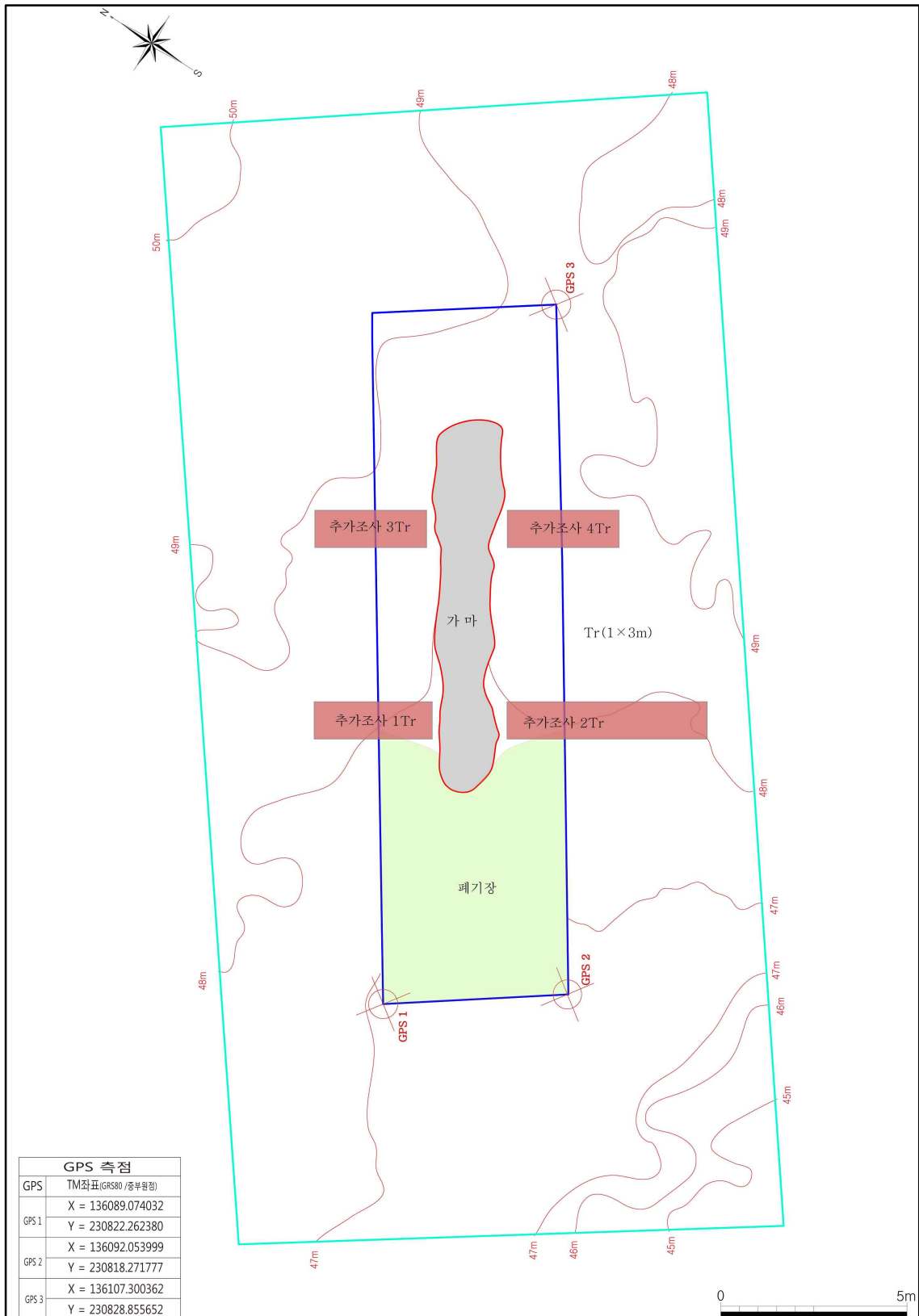
Ⅲ. 조사 내용

해남 지역의 청자는 1983년 산이면 진산리 일대에 청자 가마터가 알려지면서부터 학계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이곳은 단기간에 축조된 가마로는 밀집도가 가장 높으며, 수적인 면에서도 180여기가 분포되어 있는 강진군 대구면 일대 청자 가마터에 버금가는 대규모 집단 가마로 한국 도자사 연구에 매우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후 국립광주박물관(2000), 목포대학교 박물관에서 정밀지표조사를 실시하여 그 중요성이 다시 인정되었으며, 2004년 2월 13일 해남 신덕리 청자요지군은 전라남도 기념물 제220호로 지정되었다.



도면 8. 해남 청자 가마터 분포도

이 일대 가마의 대부분이 고려 초기에 운영되었는데 이처럼 초기 청자 가마가 집단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곳은 신덕리가 유일하다. 따라서 일찍부터 국내 자기 발생의 단서와 초기 청자의 기형 변화 등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유적으로 주목받아 왔다. 그러나 지표조사만 실시되어 성격 규명에 어려움이 있고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훼손의 위험이 있어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 신덕리 청자요지군(20)에 대한 발굴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도면 9. 해남 신덕리 청자요지 유구배치도

1. 가마

가마는 육덕산 남사면 말단부의 해발 45~48m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에는 56여 곳의 초기 청자가마터가 분포하고 있다.

발굴조사는 천장이 함몰된 가마를 중심으로 5×10m의 그리드를 설정한 후 가마와 직교하여 트렌치 조사하였다. 표토층을 제거하자 소결된 가마벽선이 노출되었으며 이 층을 기준으로 확장조사를 실시하였다. 퇴적은 하단부로 갈수록 적갈색점토층(Ⅱ층)이 40cm 가량 퇴적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가마 하단부에 폐기장(소토, 가마벽편, 청자편)이 확인된다.

가마는 자연경사면을 굴착하여 조성한 반지하식의 單室 登窯로 판단된다.

가마의 길이는 10m 정도이며, 출토유물은 청자를 중심으로 도지미, 갑발 등의 요도구가 확인된다.



사진 4. 조사전 전경

표 2. 가마 규모

(단위:cm)

	길이	너비	깊이	경사도	천정 높이(추정)
규모	1000	130~160	20~80	12°	70~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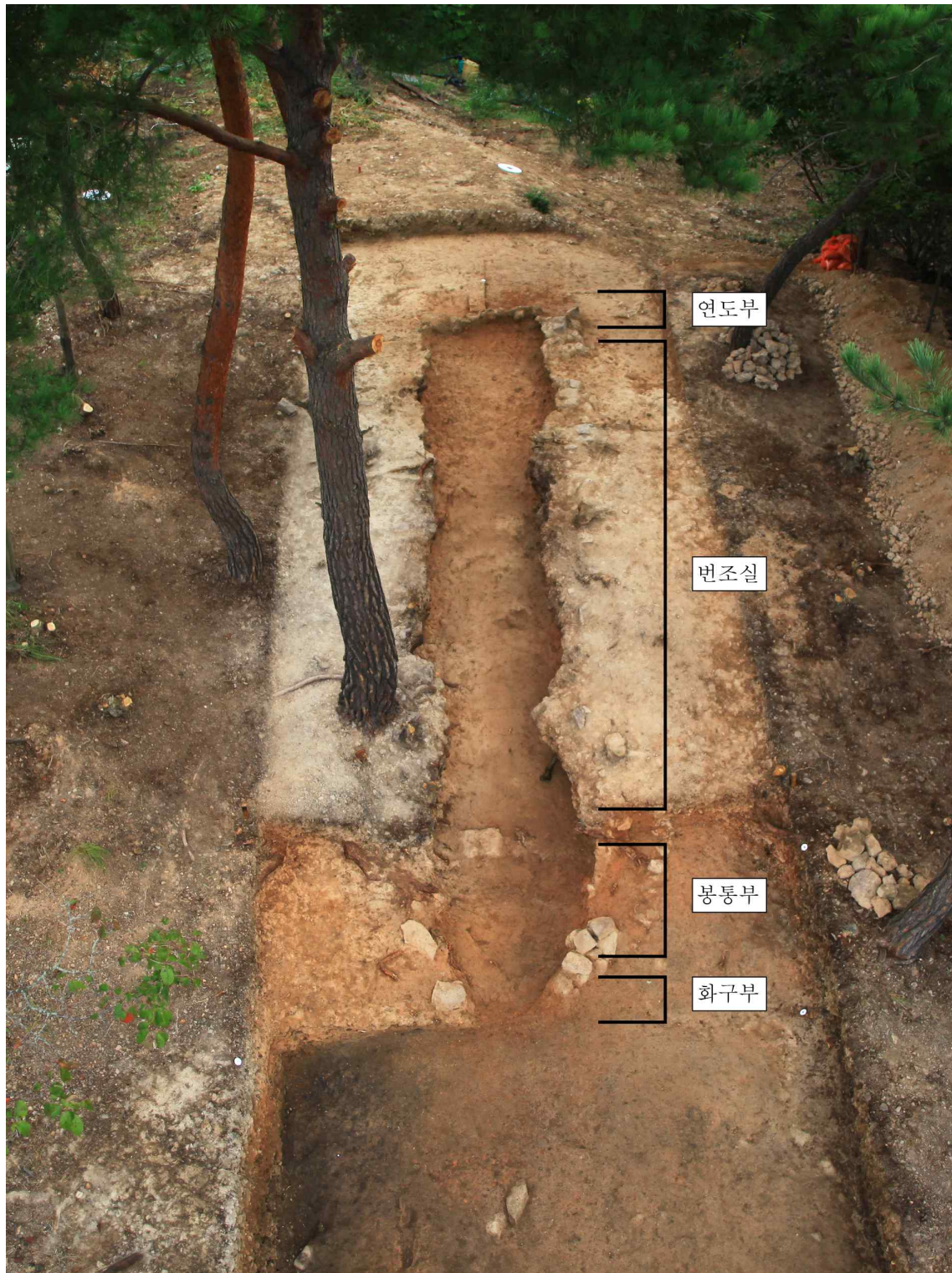


사진 5. 조사완료 전경

(1) 봉통부

봉통부는 땀감이 연소되는 공간으로 화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번조실로 전달하는 시설이다. 화구부 주변으로 입구를 막았던 석재들이 확인 되었다. 바닥면은 2~3cm 소결된 점토를 깔아 놓았으며, 규모는 너비 70cm, 높이 5~30cm이다. 봉통부는 불턱이 형성되지 않고 번조실로 연결되며, 봉통부의 바닥면은 평편하다. 내부 퇴적으로는 표토층을 제거하자 가마벽 편 등이 포함된 적갈색 천장함물층→소량의 모래가 깔려있는 회흑색층→재층 순으로 확인된다. 규모는 너비 120cm, 높이 28cm이다.



사진 6. 봉통부 토층양상



사진 7. 화구부 원경



사진 8. 봉통부 측벽2



사진 10. 봉통부 원경



사진 9. 봉통부 측벽3

(2) 번조실

번조실은 기물을 놓고 굽는 공간으로 가마에서 가장 큰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 가마는 기반층(황색점질층)을 굴착하여 만든 반지하식으로 판단된다. 가마벽은 10~20cm 두께로 유리질화 되어 있다. 규모는 길이 800cm(추정), 너비 130~160cm, 경사도는 12° 내외이다. 바닥면에는 소량의 모래가 깔려있다.



사진 11. 가마 번조실 원경(봉통부에서 바라본 모습)



사진 12. 가마 번조실 측벽1



사진 13. 가마 번조실 측벽2

(3) 연도부

연도부는 번조실에서 급경사를 이루고 있는데, 너비는 150cm, 높이 20cm이다. 배연공은 7조로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정확한 형태는 파악할 수 없다.



사진 14. 가마 연도부 전경



사진 15. 가마 연도부 배연공

2. 추가조사 Tr

가마 번조실 좌·우 벽체의 손상을 우려하여 구지표층까지 미조사 되었다. 9월20, 27 일 자문회의 및 현장공개 결과, 가마 측면의 출입시설과 퇴적양상에 대한 의견이 제기 되었다. 이에 가마 벽체에 훼손을 최소화 하기 위해 가마를 중심으로 폭 1m Tr. 설정 후 추가 조사를 진행하였다.

출입시설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유물은 가마 우측면에서 주로 확인되었다. 가마 외부 구지표층 우측면 바닥에는 벽을 보강하였던 흔적으로 보이는 석재들이 확인 되었다.

(1). 1Tr

가마 봉통부 좌측에 구획(1×3m) 후 조사를 실시하였다. 층위는 4층으로 나뉘며, I 층은 표토층, II층은 황갈색 사질점토층으로 가마 폐기이후 퇴적층으로 유물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 III층은 자기 파편이 다른 층에 비해 많으며, 내부에서는 청자 파편과 갑 발 등이 출토되었다. IV층은 적갈색점토층으로 가마 축조 시 다져진 층으로 매우 단단 하다.



사진 16. 1Tr

(2). 2Tr

가마 봉통부 우측에 구획(1×7m) 후 조사를 실시하였다. 층위는 4층으로 나뉘며, I층은 표토층, II층은 황갈색 사질점토층으로 가마 폐기이후 퇴적층으로 유물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 III층은 자기 파편이 다른 층에 비해 많으며, 내부에서는 청자 파편과 갑발 등이 출토되었다. 1Tr 층위와 비교하여 볼 때, 유물의 폐기는 가마의 우측면으로 자연경사면을 이용하여 사용 하였다. IV층은 적갈색점토층으로 가마 축조 시 다져진 층으로 매우 단단하다.



사진 17. 2Tr

(3). 3Tr

가마 번조실 좌측에 구획(1×3m) 후 조사를 실시하였다. 층위는 3층으로 나뉘며, I층은 표토층, II층은 황갈색 사질점토층으로 가마 폐기이후 퇴적층으로 유물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 III층은 적갈색점토층으로 가마 축조 시 다져진 층으로 매우 단단하다.



사진 18. 3Tr

(4). 4Tr

가마 번조실 우측에 구획(1×3m) 후 조사를 실시하였다. 층위는 3층으로 나뉘며, I 층은 표토층, II 층은 황갈색 사질점토층으로 가마 폐기이후 퇴적층으로 유물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 III 층은 회갈색 생토층이 확인 되었다.



사진 19. 4Tr

3. 폐기장

폐기장은 가마의 요전부 조사와 추가 Tr.조사중 확인되었다. 주로 가마의 우측 경사면과 가마 요전부 하단에 위치한다. 화구 하단부 좌·우로 내려갈수록 깊어지는 지형을 이룬다. 조사금번 발굴조사에서는 폐기장(5×8m)에 그리드를 구획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깊이는 20~110cm 이며, 퇴적 양상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곡부를 이용해 자기류와 요도구 가마 폐기물 등을 폐기하였다.

퇴적층은 크게 2개 층으로, I 층은 적갈색사질점토층으로 유물의 수량은 적은편이다. 내부에서는 청자편과 가마 벽체편 등이 확인된다. II 층은 회갈색사질점토층으로 다량의 자기편과 갑발 등이 확인된다. 퇴적층의 두께는 1m 내외로 비교적 두텁다. 내부에서는 접시, 완, 갑발, 등이 주를 이루며 흑유(호, 병) 등이 출토되었다.



사진 20. 폐기장 토층

4. 출토유물

유물은 가마 내부보다는 폐기장에서 많이 확인되었다. 기종은 완, 접시 등과 같은 생활용기가 중심을 이루며, 병, 호의 순서로 확인되고 있다. 일부 도기편 등이 확인된다.



사진 21. 출토유물1



사진 22. 출토 유물2



사진 23. 출토 유물3



사진 24. 출토 유물4



사진 25. 출토 유물5



사진 26. 출토 유물6



사진 27. 출토 유물7



사진 28. 복토 광경



사진 29. 복토 완료

V. 조사 성과

이번조사는 전라남도 해남군 화원면 신덕리 산 102번지 일대에 위치한 해남 신덕리 청자요지 가마터에 대한 발굴조사를 2017년 9월 4일부터 2017년 12월 8일까지 진행하였다.

1. 발굴조사 결과 청자 가마터 1기, 가마 퇴적층(폐기장)의 유구가 조사되었으며, 출토유물은 청자 완, 접시, 병, 호, 도지미, 갑발 등이 출토되었다. 또한, 흑유와 도기가 확인되어 다양한 요업 활동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청자 가마는 현재 남아있는 상태를 보면 자연 경사면을 굴광하여 축조한 반지하식 단실요로 판단된다. 봉통부는 불턱이 형성되지 않고 번조실로 연결되며, 바닥면은 평편하다. 번조실 바닥면에는 소량의 모래가 깔려 있다. 가마벽은 10~20cm 두께로 유리질화 되어 있다. 연도부는 번조실에서 급경사를 이루고 있으며, 배연공은 7조로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3. 출토유물은 대부분 폐기장에서 확인되었다. 퇴적 양상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곡부를 이용해 자기류와 요도구 가마폐기물 등을 폐기하였다. 가장 많이 출토된 기종은 완과 접시가 중심을 이루며 그 뒤를 이어 병, 호, 도지미, 갑발 등이 확인되고 있다. 특히 병과 호는 흑유가 주를 이룬다. 흑유편병은 동체부를 편평하게 타격하여 납작하게 만든 것으로 1면이 확인되고 있다.

4. 이번에 조사된 신덕리 청자요지군(20)이외에도 해남 화원면 신덕리 일대에는 모두 56곳의 초기 청자가마터가 분포하고 있다. 따라서 화원면 신덕리 일대가 대규모 자기를 만들었던 장소임을 보여주고 있다.

5. 앞으로 신덕리, 진산리 일대에 대한 전면적인 발굴조사가 이루어져 초기청자가마, 마지막 요업단계가마 등이 확인 된다면, 청자 가마의 생산 구조와 유통체제를 밝힐 수 있는 중요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6. 무엇보다 군민들에게 해남의 유구한 도자문화 전통이 갖는 역사적 문화적 예술적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큰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조사단 의견서

이번조사는 전라남도 해남군 화원면 신덕리 산 102번지 일대에 위치한 해남 신덕리 청자요지 가마터에 대한 발굴조사를 2017년 9월 4일부터 2017년 12월 1일까지 진행하였다.

1. 발굴조사 결과 청자 가마터 1기, 가마 퇴적층(폐기장)의 유구가 조사되었으며, 출토유물은 청자 완, 접시, 병, 호, 도지미, 갑발 등이 출토되었다. 또한, 흑유와 도기가 확인되어 다양한 요업 활동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청자 가마는 현재 남아있는 상태를 보면 자연 경사면을 굴광하여 축조한 반지하식 단실요로 판단된다. 봉통부는 불턱이 형성되지 않고 변조실로 연결되며, 바닥면은 평편하다. 변조실 바닥면에는 소량의 모래가 깔려 있다. 가마벽은 10~20cm 두께로 유리질화 되어 있다. 연도부는 변조실에서 급경사를 이루고 있으며, 배연공은 7조로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3. 출토유물은 대부분 폐기장에서 확인 되었다. 퇴적 양상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곡부를 이용해 자기류와 요도구 가마폐기물 등을 폐기하였다. 가장 많이 출토된 기종은 완과 접시가 중심을 이루며 그 뒤를 이어 병, 호, 도지미, 갑발 등이 확인되고 있다. 특히 병과 호는 흑유가 주를 이룬다. 흑유편병은 동체부를 편평하게 타격하여 납작하게 만든 것으로 1면이 확인되고 있다.

4. 이번에 조사된 신덕리 청자요지군(20)이외에도 해남 화원면 신덕리 일대에는 모두 56곳의 초기 청자가마터가 분포하고 있다. 따라서 화원면 신덕리 일대가 대규모 자기를 만들었던 장소임을 보여주고 있다.

5. 앞으로 신덕리, 진산리 일대에 대한 전면적인 발굴조사가 이루어져 초기청자가마, 마지막 요업단계가마등이 확인 된다면, 청자 가마의 생산 구조와 유통체제를 밝힐 수 있는 중요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6. 무엇보다 군민들에게 해남의 유구한 도자문화 전통이 갖는 역사적 문화적 예술적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큰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2017년 12월 5일

(재) 민족문화유산연구원장



자문위원 의견서			
유적 명칭	해남 신덕리 청자요지군(20) (제2017-1067)		
유적 위치	전라남도 해남군 화원면 신덕리 산 102 일원		
조사 면적	620 m ²	조사기관	민족문화재연구원
조사 기간	2017. 09. 04 - 2017. 09.29	회의 일시	2017.09.20
유적 현황 및 성격	1. 흙기형자의 한 사례를 확인할 수 있는 형자 및 제작 1기가 밝혀짐. 2. 가마 주변에 퇴적이 확인되거나 후대의 정작으로 퇴적된 것으로 추정됨.		
조사기관 의견 검토	3. 총 길이 10mm로 인근 전성리 17호 가마라는 규모와 후자가 다름(91년 반로조사 사례) 4. 가마 형상과 축면 5부양상 확인필요. 탐색 대상은 이위에 취하여 할 것. 5. 향후 체계적인 정밀 조사 이루어야 하는 경우, 이므로 현안이 주의를 미쳐야 하는 문제로 볼 것.		
추가 의견	1. 해남 화원지역의 흙기형자가, 마지막 요령 단계 가마, 산이변인대의 흙기형에 가마음이 조사되어 해남 일대의 흙기형에 대한 재검토에 기여할 것임. 2. 전방인대 흙기형자 정작의 확인을 위하여 연차적인 반로조사가 필요함.		
자문위원 인지로 변경한 중요한 유적 인바, 향후 국가사적으로 지정할 것을 기대함.			
소 속	성 명	소 속	성 명
민족문화재연구원	김민준	민족문화재연구원	이희재
민족문화재연구원	김민준	민족문화재연구원	이희재
민족문화재연구원	김민준	민족문화재연구원	이희재
2017년 9월 27일			

출토유물 현황

1. 출토유물 목록

1-1 총괄표

재질별 구분	주요 출토 유물	수량	비 고
1. 금속류			
2. 옥석유리			
3. 토도	자기류	6점	
4. 골각			
5. 목죽초칠			
6. 기타			
계		6점/81 BOX	

* 재질별 분류는 금속류, 옥석유리, 토도, 골각, 목죽초칠, 기타로 분류할 것.

1-2 세부목록

유 물 목 록									
일련번호	유물명	수량 (점)	분 류		크 기(cm)			사진 번호	비고
			재질	시대	기고	구경	저경		
1	도기편	1	토도	고려	(14.5)	(15)	0.6	30-1	지표수습
2	갑발	1	토도	고려	7.5	21		30-2	폐기장 II
3	흑유병	1	토도	고려	21.5	(3.4)	10.2	30-3	폐기장 II
4	청자접시	1	토도	고려	6	18.2	6.1	30-4	폐기장 II
5	청자화형접시	1	토도	고려	3.5	11.2	5.3	30-5	폐기장 II
6	청자완	1	토도	고려	4.5	13	5.5	30-6	가마 봉통부

2. 출토유물 사진



사진 30. 약보고서 등록유물



사진 31. 출토유물 전체박스